금수강산

8

주체109(2020)
루계 제372호 월간

 ISSN 1727—9062

표지: 우리 장단이 좋아
주체108(2019)년 10월 촬영

대동강반의 련광정에서 우리 장단에 맞추어 가야금을 타는 소녀.

민족악기로 흥취나는 민요를 연주하는 손녀의 대견한 모습에 할머니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가야금에서 울려나오는 웅글진 소리는 어린 동생의 호기심도 끌어당기고있다.

본사기자 김성철

뒤표지: 금강산 해금강문

편집: 최경희

차 례

2

15

28

34

56

민족재생의 봄을 안아오시여

8월 15일은 우리 민족이 해방을 맞이한 날이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삼천리강토는 일제의 군화발밑에서 유린당하였고 겨레는 자기의 말과 글마저 빼앗기였다.

인민은 망국의 치욕을 씻어보려고 눈물겨운 국채보상운동도 해보고 의분을 안고 의병투쟁과 독립군활동도 벌리였다. 또 3.1인민봉기와 6.10만세시위도 하였다. 그러나 그 모든것으로도 나라의 독립을 이룩할수 없었다.

캄캄한 어둠뿐이던 이 땅에 민족재생의 봄을 안아오신분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이시였다.

수난많은 민족의 아들로 탄생하시여 겨레가 당하는 괴로움과 슬픔을 체험하신 그이께서는 어린시절 아버님이 쓰시던 벼루에 먹을 갈아 《조선독립》이라는 글을 쓰시였다. 나라찾을 큰뜻을 품으신 그이이시기에 14살 어리신 나이에 조선이 독립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으실 맹세를 다지시며 압록강을 건느시였다.

초기혁명활동의 나날에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자신에게 있다는 심오한 진리를 발견하신 그이께서는 인민을 믿고 인민에게 의거하는 길을 개척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무장한 적은 오직 무장으로써만 맞서 싸워이길수 있다는 무장투쟁로선을 제시하시고 일제와의 대전을 선포하시였다.

그때까지만 해도 일본제국주의는 함선, 땅크, 비행기를 가지고있었다.

국권도 령토도 자원도 다 빼앗긴 망국노의 청년들이 일본에 도전한다는것은 사실 상상을 초월하는것이였다.

과연 그이께서는 무슨 힘에 대한 확신으로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하실 결심을 내리시였는가.

인민에 대한 믿음이였다.

인민이 국가이고 인민이 후방이며 인민이 정규군이다. 싸움이 시작되면 전민이 병사가 되여 일어날것이다.

독립운동에 나선 사람들이 《민족인격완성론》, 《민족개조론》의 대상으로 여기던 인민대중이 그이께 있어서 스승이였고 지혜였다.

그이께서는 이렇게 인민을 믿고 설한풍 휩쓰는 백두밀림과 만주광야에서 피어린 항일대전을 조직전개하시였다.

항일무장투쟁은 준엄하고 시련에 찬 혈전이였다.

치렬한 소왕청유격구방위전투와 두차례에 걸치는 힘겨운 북만원정, 남패자로부터 북대정자에 이르는 고난의 행군…

날에 날을 이어 계속되는 적들과의 격전, 박달나무도 얼어터지는 혹한 등 그이께서 겪으신 온갖 고초는 다 헤아릴수 없다. 사랑하는 어머님과 동생, 삼촌을 잃으시였고 생사고락을 함께 하던 귀중한 전우들과 영리별해야 하는 가슴아픈 슬픔과 괴로움도 겪으시였다.

항일의 혈전만리에는 자칫 잘못하면 영영 주저앉아버릴수도 있는 최악의 고비들도 있었다.

끈질긴 적의 추격과 포위속에서 그이께서는 그만 촉한을 만나시였다. 유격대원들이 오열을 터치던 순간 가까스로 의식을 회복하신 그이께서는 설사 하늘이 무너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기를 쓰고 살아서 혁명을 해야 한다, 우리가 살아서 돌아가지 못하면 우리를 기다리는 동만의 수많은 일거리들을 어떻게 한단 말인가, 우리가 여기서 그대로 주저앉으면 조선인민이 일제의 영원한 노예가 된다는 생각을 하시였다.

사나운 눈보라가 기승을 부리는 천교령에서 그이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명작 《반일전가》를 지으시였다. 이 노래는 쓰러졌던 대원들을 다시 일으켜세웠다.

이처럼 그이께서는 도탄에 빠진 겨레의 운명을 구원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안고 겹쳐드는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시며 조국해방의 길을 걸음걸음 개척해나가시였다.

항일전쟁의 가지가지의 사연이 담겨진 그이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읽은 한 재미동포언론인은 이루 말 못할 숭엄한 감정과 격정이 가슴속에 차올라 회고록의 갈피를 걷잡을수 없이 쏟아지는 눈물로 적시였다고 하였다.

그이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의 전기간 독창적인 전략전술과 유격전법들을 창조하시였다.

대부대와 소부대의 활동을 배합하는 전술, 동성서격의 전술, 일행천리전술, 갈지자전법, 매복전, 습격전, 망원전술 등은 동서고금의 어느 병서나 군사교범에도 찾아볼수 없는 전법과 전술이였다.

조선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것을 내외에 선언한 보천보전투, 간삼봉전투, 대홍단전투를 비롯한 수많은 전투들마다에서 일제의 대군은 《창해일속》이라고 하던 조선인민혁명군에 의해 수치스러운 참패만을 당하였다.

언제나 단합된 인민의 힘을 믿으신 그이께서는 주체25(1936)년 5월 조국광복회를 창건하시여 나라를 사랑하고 일제를 미워하는 모든 사람들을 묶어세우시였다.

조국해방을 위한 조선인민혁명군의 총공격이 벌어지던 그때 국내의 도처에서 항쟁조직들이 들고일어나 일제의 패망을 더욱 앞당겼으며 우리 민족은 마침내 해방을 맞이하게 되였다.

진정 위대한 수령님은 도탄에 빠졌던 우리 민족에게 재생의 새봄을 안겨주신 은인이시였다.

그때로부터 어언 75년이 흐르고 강산도 몰라보게 달라졌다. 하지만 항일의 혈전만리, 눈보라만리를 헤치시며 빼앗겼던 나라를 다시 찾아주시고 다 죽었던 민족의 운명을 재생시키신 그이의 업적은 민족사와 더불어 길이 전해지고있다.

글 본사기자 변진혁
사진 본사기자 김성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해방업적을 길이 전해주는 개선문 주체108(2019)년 촬영

회상기

최후공격작전방향을 제시하시여

주체34(1945)년 5월 하순 어느날 훈련기지에서 군정훈련을 하고있던 나는 몇몇 지휘관들과 함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부르심을 받고 간백산밀영으로 가게 되였다.

밀영에 도착하니 벌써 각지에 파견되였던 지휘관들은 물론 북부조선일대에 전개되였던 여러 부대들이 모두 집결되여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령부귀틀집에 들어서는 우리들을 반갑게 맞아주시며 조국해방을 위한 최후공격작전방향을 토의하기 위해 불렀다고 하시는것이였다.

(얼마나 기다리던 시각인가!)

저으기 흥분되여있는 우리들을 둘러보시던 그이께서는 먼저 각 부대들의 훈련정형에 대해 들어보자고 하시였다.

락하훈련정형에 대해 물으시는 그이께 나는 모든 대원들이 이제는 어떤 어려운 정황에서도 락하를 잘한다고 보고올리였다.

그이께서는 앞으로 최후공격작전에서 항공륙전대의 임무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작전이 개시되면 항공륙전대들은 빨리 기동하여 근거지들을 차지하고 조선인민혁명군 소부대, 소조들과 인민무장대들로 대오를 확대하여 인민들을 전민봉기에로 불러일으켜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나는 우리 부대가 맡은 임무의 중요성을 다시금 자각하게 되였다.

그때로부터 며칠후 밀영에서는 조선인민혁명군 군정간부회의가 열리였다.

그이께서는 회의에서 간백산밀영에 집결한 부대들의 최후공격작전방향을 제시하시였다.

백암을 거쳐 길주방향으로 그리고 보천, 혜산, 갑산을 거친 함흥방향과 부전, 신흥을 거친 함흥방향으로 또한 신파, 후창을 거쳐 강계방향으로 등 각 부대들의 작전방향이 구체적이고도 면밀히 밝혀졌다.

우리 인민자체의 힘으로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기 위한 최후공격작전방향이 제시된 간백산밀영은 크나큰 감격과 흥분으로 들끓었다.

그이께서는 그후 주체34(1945)년 6월 상순 밀영에서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 및 병사대회를 여시였다.

대회에서 최후공격작전방향과 관련하여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면서 그이께서는 모든 지휘관, 병사들이 조국해방성전에서 무비의 대담성과 영웅성을 발휘하여 일제를 모조리 격멸소탕할것을 호소하시였다.

그이의 연설이 끝나자 환호성이 터져오르고 대원들의 힘찬 웨침소리가 밀영이 떠나갈듯 울렸다.

《우리의 힘으로 조선혁명을 완수하자!》

《조국땅에서 일제침략자들을 격멸소탕하고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하자!》

대회가 끝난 후 부대별로 결의모임들이 진행되였다.

나는 그때 한 부대의 결의모임에 참가하였는데 앞을 다투어 일어나 다지는 대원들의 맹세를 들으며 큰 힘을 얻었다.

대원들은 모두가 부모형제들의 원한을 풀고 희생된 전우들의 뜻을 기어이 이루자, 나에게 가장 힘든 과업을 맡겨달라, 죽는것은 임무를 수행하기보다 쉽다, 죽어도 임무를 수행하고야 죽을것이라고 결의다졌다.

그들의 이야기는 길지 않았지만 조국해방을 기어이 이룩하고야말겠다는 결의만은 명백하였다.

다음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대원들의 기세를 더욱 높여주며 각 부대들의 전투력을 알아보시기 위하여 군사체육경기와 연예공연을 조직하시였다.

무선통신경기, 무기분해결합경기, 장애물극복경기, 수류탄던지기 등 여러가지 종목으로 진행된 체육경기와 공연에서 모든 부대들은 자기의 전투력을 시위하였다.

대원들의 충천한 기세는 그로부터 2달후 진행된 조국해방작전에서 남김없이 발휘되였다.

이렇듯 조국해방의 결정적시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최후공격작전방향을 제시하심으로써 우리는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할수 있었다.

항일혁명투사 오진우

수 기

해방의 환희를 더듬으며

조국해방의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있다.

우리 조국이 일제의 군사적강점에서 해방된 때로부터 어느덧 75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이 흘렀지만 그날에 차넘치던 환희가 80고령에 이른 나의 가슴을 울려주고있다.

나라가 해방되였을 당시 내 나이는 7살이였다.

당시 남조선 경기도 김포시의 어느 한 농촌마을에서 살고있던 우리 가정에도 해방의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 동구밖까지 달려나와 얼싸 안고 덩실덩실 춤을 추고 《만세!》를 부르며 해방의 기쁨을 터뜨리는 동네사람들속에는 어린 나도 있었다.

내가 다니던 학교의 교장은 일본사람이였는데 그는 사람들의 해방만세소리에 기겁하여 신발도 못 신고 도망쳤다.

내 어린 마음에도 일본의 패망이 참으로 통쾌하고 시원하였다.

이제 더는 지긋지긋한 반항공훈련을 하지 않을것이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던것이였다.

그해 4월에 학교에 입학하여 넉달나마 되는 기간 나는 동무들과 함께 책상앞에 앉아 공부를 한것이 아니라 운동장에서 반항공훈련만 하였다. 패망을 앞둔 일제가 마지막모지름을 썼던것이였다.

해방을 맞고보니 우리 학교에서는 정말로 그런 반항공훈련이 더는 없었다.

삼천리강산을 뒤흔드는 감격의 열풍속에 서울을 비롯한 남조선의 여러 지역의 인민들도 민족이 낳은 전설적영웅 **김일성**장군님의 조국개선을 손꼽아 기다리였다.

우리 고향에 살고있던 아버지의 한 친구는 그해 10월에 평양으로 올라가 평양시환영군중대회에 참석하신 **김일성**장군님을 뵙고 내려왔다. 아버지를 찾아온 그의 품속에는 《평양민보》 한장이 있었다.

거기에는 《금수강산을 진동시키는 40만의 환호성》이라는 제목으로 이런 내용의 기사가 실려있었다.

《평양의 력사가 깊어 4천년, 인구가 적지 않아 40만이라 하나니 일찌기 이와 같이도 많은 사람이 모인 일이 있었던가? 이와 같이도 뜻깊은 모임을 가져본 일이 있었던가? …

…조선동포가 가장 숭모하고 고대하던 영웅 **김일성**장군께서 그 름름한 용자를 한번 나타내이니 장내는 열광적환호로 숨막힐듯 되고 거의 전부가 너무 큰 감동때문에 소리없는 울음을 울었다.》

우리 나라 력사에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민족의 대경사, 해방된 조선의 새 아침을 안아온 력사적사변으로 되는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개선소식에 접한 아버지는 온밤 잠들지 못하였다.

남조선로동당에 입당하여 5.10단선반대투쟁의 앞장에 섰던 아버지는 집에서 자주 비밀리에 회의를 가지군 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한 밀고자에 의해 아버지는 체포되여 인천형무소를 거쳐 서울마포형무소로 이송되였지만 옥중투쟁을 멈추지 않았다.

조국해방전쟁(1950. 6. 25-1953. 7. 27.)이 일어났을 때 형님들은 의용군에 입대하였고 아버지는 당시 면농민동맹위원장으로 사업하였다.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나는 아버지와 함께 인민군대를 따라 북으로 향하였다.

전후 나는 평양의학대학에서 공부하였으며 50여년세월 의학연구원 약학연구소에서 연구사로 사업하면서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할수 있는 효능높은 약품들을 연구개발하였다.

존엄높은 새 삶을 안겨준 어머니조국을 위해 나의 지혜와 열정을 아낌없이 바치는것은 이 나라 공민으로서 응당 할 일이였지만 공화국에서는 공훈과학자로, 박사, 부교수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학위학직수여위원회 약제심의분과 부위원장으로 내세워주었다.

가끔 오늘의 값진 삶과 행복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의례히 나는 해방의 그 감격을 떠올리지 않을수 없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나라를 찾아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 민족의 운명이 과연 어떻게 되였겠는가.

진정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찾아주고 빛내주신 내 조국,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령도하시는 공화국은 우리모두가 안겨살 삶의 보금자리이다.

의학연구원 연구사 오수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중에서

혈전의 준비

명월구회의에서는 조직적인 무장투쟁을 전개할데 대한 결론을 내리면서 우리가 이 사업에서 선구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해줄것을 요구하였다.

《첫시작은 **김일성**이 떼라. 무슨 일이나 표본이 있고 시범이 있는 법이 아니냐.》

동무들은 이런 말로 나와의 작별인사를 대신하였다.

나는 회의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다 떠날 때까지 명월구에 남아있다가 동장영과 헤여져 안도에 갔다. 유격전을 하자면 어느모로 보나 안도와 같은 고장이 좋았다.

12월명월구회의에서도 론의된바이지만 우리는 무장대를 조직하는데서 선차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문제는 9.18사변후 만주각지에서 조직된 중국의 반일무장력인 구국군과의 사업에 착수하는것이라고 인정하고 조직의 기본력량을 안도와 왕청에 두기로 하였다. 안도와 왕청은 구국군의 집결중심지였다.

흥륭촌에 돌아온 나는 가족들과 함께 마춘욱이네 집에 얼마간 가있다가 소사하 토기점골 갈발부락으로 이사하여 반일인민유격대창건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착수하였다. 소사하는 조직화된 부락이여서 흥룡촌보다 주변환경이 대단히 좋았다. 지하조직이 든든하게 들어박힌 이 마을에는 밀정들이 마음대로 드나들지 못하였다. 주구들이 쏠라닥거리지 않으니 군경들도 소사하에는 별로 《토벌》을 오지 않았다.

반일인민유격대를 창건하기 위한 우리의 투쟁은 처음부터 여러가지 난관에 부닥치였다. 사람문제, 무기문제, 교련문제, 식량문제, 군중적토대문제, 구국군과의 관계문제를 비롯하여 군사정치적으로 많은 난문제들이 제기되여 해결을 기다리고있었다.

우리는 무장대오를 꾸리는데서 사람과 무기를 가장 중요한 두가지의 필수적요소로 보았다. 그런데 우리한테는 이 두가지가 다 부족하였다.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사람이란 군사정치적으로 준비된 인간을 의미한다. 우리한테는 정치를 알고 군사를 아는 사람, 조국과 인민을 위해 장기간 무장을 들고 싸울 준비가 되여있는 그런 청년들이 필요하였다.

우리는 한해반사이에 조선혁명군의 골간들을 거의다 잃어버리였다. 김혁, 김형권, 최효일, 공영, 리제우, 박차석과 같은 혁명군의 주력이 한해사이에 모두 전사하거나 감옥행을 한데다가 1931년 1월에는 중대장으로 활약하던 리종락이마저 조선혁명군과 관련된 소책자를 가지고 무기공작을 하러 가다가 김광렬, 장소봉, 박병화와 함께 일본령사관 경찰에 체포되였다. 군사물계에 밝은 김리갑도 감옥에 끌려갔고 백신한은 전사하였다. 최창걸과 김원우는 어떻게 되였는지 소식조차 알길이 없었다.

혁명군의 나머지력량가운데 군사경험이 있다는 대원들은 손가락으로 꼽을수 있는 정도였는데 얼마 안되는 그 대원들마저도 군중정치공작에 돌리다보니 무장대오에 망라시킬수 없었다. 내가 안도에서 유격대를 내오느라고 바쁘게 뛰여다닐 때 내곁에 있은 조선혁명군출신의 청년은 차광수 한사람뿐이였다.

국가권력을 쥐고있는 사람들같으면 동원령이나 의무병역제와 같은 법으로 필요한 군사인원들을 손쉽게 충당할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런 방법으로 사람들을 모집할수 없었다. 법적장치나 물리적힘으로써는 대중을 혁명에 동원시키지 못한다. 한때 상해림시정부는 모든 국민들이 납세, 병역징발에 응할 의무를 지닌다는 조문을 헌법에 박아넣었지만 인민들은 그런 법이 채택되였다는것조차 모르고 있었다. 국권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남의 나라 조계지 한구석에 앉아 국권을 행사하는 망명정부의 법이나 지령이 효과를 낼수 없다는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리치이다.

식민지민족해방혁명에서는 동원령이나 의무병역제와 같은 법적수단으로 사람들에게 총을 메울수 없다. 이 혁명에서는 혁명을 령도하는 수령과 선각자들의 호소가 법을 대신하며 매개 사람들의 정치도덕적자각과 전투적열정이 참군을 결정하게 된다. 대중은 그 누구의 요구나 지령이 없어도 자기자신의 해방을 위하여 스스로 총을 멘다. 이것은 자주성을 생명으로 간주하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바칠 각오가 되여있는 인민대중의 본성적행위이다.

우리는 이런 원리에 기초하여 안도와 그 주변에서 유격대에 망라시킬 대상들을 물색하기 시작했다. 적위대, 소년선봉대, 로동자규찰대, 지방돌격대와 같은 반군사조직들에는 참군을 요구하는 끌끌한 청년들이 많았다. 추수, 춘황투쟁의 폭풍속에서 반군사조직들은 급속히 확대되였고 그 폭풍의 한복판에서 청년들도 몰라보게 성장하였다.

그러나 대중이 참군을 요청한다고 하여 그 준비정도도 고려해보지 않고 아무 사람이나 망탕 유격대에 받아들일수는 없었다. 동만의 청장년들은 아직 군사적으로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 유격대의 인적원천을 확보하자면 적위대와 소년선봉대를 비롯한 반군사조직들에서 청년들에 대한 정치군사적훈련을 강화해야 하였다.

그런데 내곁에는 교련을 맡아볼수 있는 인재가 한명도 없었다. 나 혼자의 힘으로는 안도지구의 청년들을 모조리 군사화할수 없었다. 내자신도 화성의숙의 물을 좀 먹었다고는 하지만 새형의 군대, 유격대를 움직이기 위한 군사실천면에서는 백지상태나 다름없었다. 책상물림인 차광수는 나보다도 군사를 더 몰랐다. 리종락이마저 감옥에 잡혀가니 이제는 기대를 가지고 쳐다볼 인물도 없게 되였다. 리종락과 같은 사람만 있으면 그에게 군사를 일임하고 나는 정치사업에 전적으로 시간을 바칠수 있으련만 그렇게 할수 없으니 안타깝기만 하였다.

어려운 고비에 처할 때마다 나는 이상하게도 매번 동지의 부족을 느끼군 하였다.

우리가 이런 고충을 겪고있을 때에 박훈이라고 부르는 황포군관학교출신의 유망한 인물이 우리를 찾아왔다. 황포군관학교의 교장은 장개석이가 하였고 정치부주임은 주은래가 하였다. 그 학교에 조선청년들이 많았다. 중국사람들이 광주폭동을 《3일쏘베트》라고도 하는데 이 폭동에서 주동적역할을 담당한것이 바로 황포군관학교 학생들이였다.

박훈과 안붕은 광주폭동에 참가하였다가 폭동이 실패하자 관내에서 도망쳐나와 만주로 탈출해온 사람들이였다. 박훈은 체격도 건장하고 언행이나 몸가짐도 무인답게 활달하였다. 그는 조선말보다 중국말을 더 많이 사용하였으며 조선옷보다 중국옷을 더 자주 입고 다니였다. 이 사람이 바로 나의 《군사고문》이였다.

장개석이 혁명을 배반(4월12일사변)한것으로 하여 국공합작이 파괴되고 제1차 국내혁명전쟁이 실패로 막을 내린 후 남방지방으로부터 양림, 최용건, 오성륜(전광), 장지락, 박훈을 비롯하여 황포군관학교, 광동군관학교, 운남강무당과 같은 무관학교를 졸업하고 중국혁명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장개석의 테로를 피해 만주지방으로 많이 들어왔다.

솔직히 말하여 나는 그때 황포군관학교라는 교명을 듣고 박훈에게 큰 기대를 걸었다.

박훈은 전투장에서 권총을 량손에 하나씩 들고 쏘는 특기를 가지고있었다. 사격솜씨가 이만저만이 아니였다. 그는 총을 정말 《귀신》같이 쏘았다.

그가 가지고있는 다른 하나의 특기는 구령을 잘 치는것이였다. 박훈은 만명이나 이만명쯤 되는 대렬도 마이크가 없이 육성으로 쉽게 움직일수 있는 희한한 목소리를 가진 교관이였다. 그가 토기점골등판에서 소리를 한마디 지르면 온 동네가 다 들었다.

안도의 청년들은 모두 그 구령소리에 반해서 박훈을 황홀한 눈길로 쳐다보았다.

《소리가 저쯤 되면 동경판에 앉아있는 일본천황도 듣겠구만. 어디서 저런 복덩이가 굴러들었을가!》

적위대원들의 교련을 지도하는 박훈의 모습을 보고 차광수는 이렇게 탄복하였다. 박훈에게 제일 반해서 돌아간것이 바로 차광수였다. 두사람은 리론투쟁을 많이 하면서도 매우 친근하게 지냈다.

박훈이 안도에서 훈련을 잘 주었기때문에 우리가 조직한 부대는 후날 왕청에 가서도 《대학생부대》라는 평판을 들었다. 우리 부대의 유격대원들은 항일전쟁의 전행정에서 언제나 질서가 있고 규률이 째이고 언행이 점잖고 옷차림이 단정한 사람들로 존경을 받았다. 양정우도 늘 우리 혁명군의 절도있고 생기발랄하고 문화적인 면모에 부러움을 감추지 못하였다.

(다음호에 계속)

력사의 날을 전하는 곳

량강도 보천군 보천읍은 주체26(1937)년 6월 4일 보천보전투가 진행된 고장이다.

당시 보천보는 면소재지로서 이곳에는 경찰관주재소, 소방회관, 면사무소, 우편소, 산림보호구, 농사시험장 등 일제의 통치기관들이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민들에게 조국해방의 서광을 안겨주기 위해 보천보전투를 조직지휘하시였다.

6월 3일 밤 압록강을 건너선 조선인민혁명군은 4일 밤 10시 보천보를 공격하여 경찰관주재소, 면사무소를 비롯한 일제의 통치기관들을 소탕하고 불태웠다.

그이께서는 인민들의 가슴마다에 투쟁의 불씨, 필승의 신념을 주는 연설을 하시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의 국내진출에 질겁한 일제는 대병력으로 추격해왔다. 그러나 적들은 구시산전투와 간삼봉전투에서 또다시 큰 참패를 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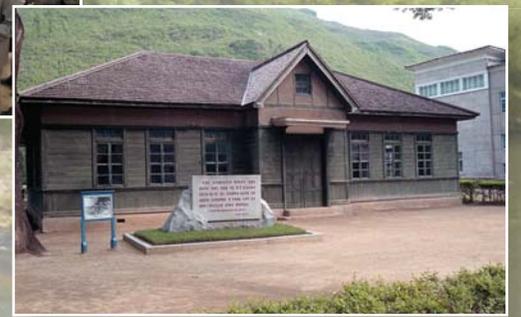
보천보는 이렇듯 력사적인 전투를 통하여 일제의 군사적강점하에서 신음하는 조선인민에게 승리에 대한 신념을 북돋아주었으며 조선인민혁명군의 위력을 시위하고 일제침략자들에게 타격을 준 혁명전적지이다.

전적지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이 모셔져있다.

그리고 그날의 상황을 전해주는 구시물동, 곤장덕, 보천보전투지휘처, 보천보혁명박물관이 있다.

또한 위대한 수령님께서 보천보로 진격하실 때 대원들과 함께 조국의 맑은 물을 마시며 잠시 휴식하시였던 자리와 가림천도강장소 등이 있다.

본사기자 조선일

주체107(2018)년 촬영

혁명렬사릉과 더불어

평양시 대성구역에 위치하고있는 대성산의 주작봉마루에는 혁명렬사릉이 있다.

릉은 주체64(1975)년에 세워진 후 주체74(1985)년에 개건확장되였다.

렬사릉은 크게 릉대문, 기념문주, 군상마당, 교양마당, 반신상구역으로 되여있다.

렬사릉에서 기본을 이루는것은 반신상구역이다.

이곳에는 조국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목숨바쳐 싸운 백수십명의 항일혁명렬사들의 반신상이 세워져있다.

그들중에는 조선혁명이 닻을 올리던 시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조국의 밤하늘을 밝히는 새별로, 겨레의 운명을 구원해줄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모시고 싸운 김혁, 차광수, 최창걸을 비롯하여 항일의 맹장으로 이름을 떨친 김책, 안길, 최현 등도 있다.

릉에 안치된 렬사들의 대부분은 20대안팎의 애젊은 청년들이다. 산 날보다 살아야 할 날이 더 많은 그들이였다. 그러나 렬사들은 오로지 조국해방의 위업을 위하여 뼈속까지 스며드는 엄혹한 추위와 극심한 기아속에서도 굴함없이 싸웠고 사형장으로 나가면서도 투쟁을 멈추지 않았다. 항일혁명투쟁의 나날 렬사들이 가슴속에 간직한것은 아름다운 조국산천을 기어이 되찾고 해방된 조국에서 온 겨레가 함께 모여살 그날을 앞당길 일념뿐이였다.

하기에 조국은 렬사들을 영웅으로 떠받들고 그들의 숭고한 혁명정신과 업적을 길이 전해가고있다.

이곳을 찾는 조국인민들은 렬사들의 반신상앞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경의를 표시하고있다. 그리고 렬사들이 항일혁명의 나날에 지녔던 신념과 조국애, 용감성과 강의성을 언제나 잊지 않고 빛내여갈 결의를 다진다.

언제인가 혁명렬사릉을 참관한 이란 전 부대통령 모함마드 자바드 하쥐 알리 아크바리는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피력하였다.

《대성산혁명렬사릉은 절세위인들의 혁명적의리와 동지애의 세계를 보여주는 곳이다. 항일혁명투쟁시기 조선의 아들딸들은 나라의 해방을 위하여 한목숨 서슴없이 바쳐 싸웠다. 절세위인들의 위대한 품속에서 조선의 렬사들은 영생의 삶을 누리고있다.》

참으로 혁명렬사릉은 떠나간 항일혁명렬사들에 대한 조국과 인민의 존경의 표시이고 혁명위업에 바친 그들의 정신과 업적을 세대를 이어 길이 전해가는 도덕의리의 상징이다.

본사기자 김지성

평양의 밤

사진 김성철

전력증산을 위하여

동평양화력발전소에서 전력증산의 동음을 높이 울리고있다.

발전소의 전력생산자들은 련관단위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석탄을 비롯한 원료, 자재보장을 선행시켜 전력생산에 사소한 지장이 없도록 하고있다. 특히 전력계통의 실시간감시체계를 세우는 등 전력생산의 과학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계획적으로 내밀어 성과를 확대하고있다.

열생산직장에서는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짜고들어 설비들마다에 만가동, 만부하를 걸고있다. 전력증산의 중요한 방도의 하나가 바로 설비들의 가동률을 높이는데 있다는것을 잘 알고있는 직장의 일군들은 고온공기연소안정화에 의한 착화기술을 도입하여 생산성을 훨씬 높인데 토대하여 주증기관들에 대한 보온대책을 철저히 세우는것과 함께 열설비들의 운영을 과학기술적으로 하여 가동시간을 최대한 늘이고있다. 직장의 운전공, 조작공들은 업간점검, 순회점검, 기동전점검을 질적으로 진행하여 사고요소들을 미연에 찾아 대책하고있다.

타빈직장에서도 기술혁신안들을 받아들여 전력생산에 이바지하고있다.

직장에서는 전력생산에서 관건적고리의 하나인 타빈발전기들의 효률을 높이기 위한 기술개건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었다. 이 과정에 급수뽐프의 날개를 개조한것을 비롯하여 종전보다 타빈발전기의 대당 효률을 높일수 있는 많은 기술혁신안들이 도입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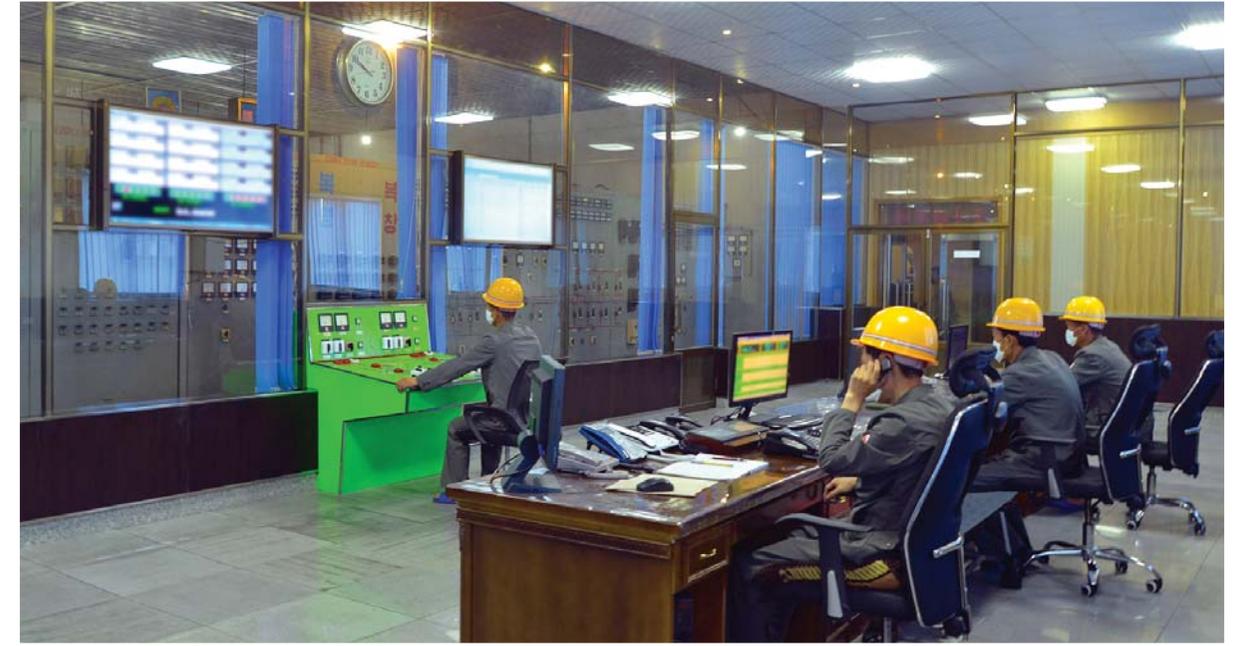
이뿐만이 아니다.

전기직장에서도 변압기, 송풍기를 비롯한 설비들의 원성능회복사업을 계획성있게 밀고나가는것과 함께 자가소비전력을 줄이기 위한 사업을 따라세우고있다.

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강행려자식교류접촉기를 전력설비들에 설치하여 자가소비전력을 극력 줄이면서 인민경제의 여러 부문에 더 많은 전력을 보내주고있다.

이밖에도 운탄직장, 자력갱생직장을 비롯한 여러 직장에서도 맡은 일을 책임적으로 하여 설비들의 정상가동을 원만히 보장함으로써 전력증산에 기여하고있다.

지금 동평양화력발전소는 나라의 전력생산에서 적지 않은 몫을 맡고있다.

글 본사기자 김성영
사진 본사기자 김금진

동포들의 애국지성을 안고

평양시 중구역 창광산기슭에 자리잡고있는 애국편직물공장은 1970년대초 총련상공인들의 애국지성에 의해 세워진 공장이다.

지금도 공장의 연혁소개실에는 설비들을 기증한 20여명 상공인들의 사진이 전시되여있다.

공장의 종업원들은 동포들의 애국의 마음을 안고 제품의 가지수를 늘이고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생산부원 리영란은 《국가상징물의 하나인 공화국기발을 형상한 T샤쯔들과 운동복은 미처 생산을 따라세우지 못할 정도로 수요가 높다.》라고 말하였다.

공장에서 생산된 봉사복들과 작업복들은 양덕온천문화휴양지의 종업원들과 평양종합병원건설자들속에서 호평을 받고있다. 뿐만아니라 평양제1백화점을 비롯한 상업봉사망들에서 판매되고있는 《창광산》상표의 편직옷제품들은 그 형태와 질에서 수요자들의 요구를 만족시키고있다.

비결은 공장에서 새 제품개발과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고있는데 있다.

공장의 일군들은 제품의 가지수를 늘이고 매 제품에 따르는 생산량을 제한하는 다품종, 소량화의 원칙을 세우고 편직옷형태를 부단히 갱신해나가고있다.

공장에서는 주에 1차씩 새 제품품평회를 열고 직장별, 작업반별, 개인별로 총화사업을 진행하는 한편 당선된 제품들을 제때에 생산에 도입하도록 하고있다.

준비직장에서는 량면대환기, 외면대환기를 비롯한 기대들의 만가동을 보장하여 여러가지 편직천을 제때에 생산하고있으며 염색작업반의 염색공들은 깐진 일본새로 염색의 질을 높여나가고있다.

제직직장의 생산자들은 점검보수를 제때에 하여 자동횡직기의 가동률을 높여나가고있다.

해외동포들의 애국지성이 깃든 공장에서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편직옷제품을 더 많이 개발생산하려는 이곳 종업원들의 열의는 자못 높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연옥

체육기재들의 품종을 늘여

《대성산》상표를 단 체육기자재들이 체육인들과 애호가들속에서 널리 리용되고있다.

제품들은 평양시의 청춘거리에 위치한 평양체육기자재공장에서 생산하고있다.

이곳 김태섭기사장의 말에 의하면 주체105(2016)년 6월에 건설된 공장은 종전에 비해 생산능력이 크게 확장되여 국내의 수요를 충분히 보장하고있다고 하였다.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70종에 170여점이다.

최근에 공장에서는 각종 훈련기재들을 생산하였다.

유술선수들의 상체힘을 발달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메치기기재와 태권도타격훈련기재는 질이 좋아 선수들속에서 호평을 받고있다.

공장에서는 3인롱구가 새로운 체육종목으로 출현한데 맞게 3인롱구공도 개발하였다. 공의 질량과 튐성 등 모든 기술적지표들이 응당한 수준에서 해결되였다.

이와 함께 공장에서는 각종 운동복과 종목별 훈련기재가방들의 가지수도 늘이였다.

품종과 가지수의 확대는 공장에서 기술력량을 강화하고 생산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자체의 힘으로 신속히 풀어나간데 있었다.

지난 시기 공장의 기본지표인 공생산에서는 내피의 재단과 보강층제작을 비롯한 일부 공정들에서 질이 보장되지 않는 등 여러 문제들이 제기되였다.

공장에서는 과학기술보급실운영을 통해 종업원들이 최신기술을 습득하도록 한것과 함께 기술혁신을 활발히 벌려 걸린 고리들을 하나하나 해결해나갔다.

이 과정에 콤퓨터조종에 의한 레이자재단기가 도입되여 합성가죽의 재단실수률을 높이였고 새로운 접착제를 개발하여 내피, 보강층, 합성가죽의 일체화를 실현하였다.

또한 풀실감기공정도 새로 확립하여 축구공, 롱구공, 배구공, 수구공들의 구형에서 변화가 오거나 사용과정에 들뜨는 현상을 극복하였다. 보강층제작에서도 새로운 방법이 도입되여 공의 튐성이 좋아지고 수명이 늘어났다.

이외에도 공구형도측정장치, 튐성도검사장치 조종반, 물흡수력검사장치, 공발사기 등 검사설비들을 제작하여 제품의 질을 국제적기준에 철저히 부합시켜나가고있다.

지금 공장에서는 생산과 경영활동의 현대화, 정보화사업에 중점을 두고 더 많은 제품들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내밀고있다.

지배인 장석하는《종업원들모두가 <대성산> 상표를 단 제품들이 경기들에서 더 많은 금메달을 획득하는데 이바지되기를 기대하고있다.》라고 말하였다.

글 본사기자 김성경
사진 본사기자 임정국

버섯생산을 보다 실리있게

평양시교외에 자리잡고있는 류경버섯공장에서 버섯생산을 늘여가고있다.

공장에서는 해마다 수백t의 버섯을 생산하고 있다.

비결은 생산공정의 현대화, 정보화에도 있지만 공장에서 버섯생산을 보다 실리있게 해나가고있는데 있다.

박철호기사장은 《우리는 생산장성의 열쇠를 원가를 줄이고 보다 실리있는 버섯생산기술을 도입하는데서 찾았다.》라고 말하였다.

지난 시기 공장에서는 생산의 기본원료인 기질을 1차밖에 리용하지 못하였다.

버섯생산의 한 주기를 보통 50일로 보는데 매 주기마다 원료를 보장하는데 드는 원가와 로력은 결코 적지 않았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버섯생산에서 실리를 보장할수 없었다. 그래서 창안도입한것이 생산에 리용된 페기질을 5차에 걸쳐 재생리용하는 방법이였다.

탄소와 질소비률을 합리적으로 맞추는 새 기술도입으로 공장에서는 흰곤봉버섯생산에 3차까지 리용한 페기질을 다시 느타리버섯과 털검정버섯 등 야외버섯재배에 리용하며 거기서 나오는 4차페기질을 집짐승먹이로 전환함으로써 원료를 절약하면서도 생산을 늘일수 있었다. 이와 함께 보리길금찌끼, 알곡짚 등을 대용기질로 리용하는데 성공함으로써 버섯생산의 확고한 담보를 열어놓게 되였다.

원료문제를 해결한 공장은 생산에 드는 연료를 절약하기 위한 연구도 심화시켰다.

수십차의 기술합의와 콤퓨터모의시험을 통해 멸균시간을 3분의 1로 줄이면서도 해마다 수십t의 석탄을 절약할수 있는 기술을 내놓았고 멸균물에 대한 동력랭각체계를 무동력체계로 개조함으로써 시간당 수십kW의 전력을 절약하였다.

이밖에도 멸균의 질을 높이고 무균구역에 대한 정화도를 보장하는 문제와 려과포의 사용기한을 늘이고 기질의 영양성분함량을 늘이는 연구 등 많은 연구과제들을 해결하여 버섯생산량을 1.5배나 장성시켰다.

공장에서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버섯생산의 실리를 보장하기 위한 새 기술연구사업을 끊임없이 벌려나가고있다.

글 본사기자 김성경
사진 본사기자 임철명

일 화

혁명무력령도의 나날에

백쉰두굽이

주체87(1998)년 8월 3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전선중부 최전연지대에 자리잡고있는 오성산을 찾으시였다.

해발 1 000m가 넘는 그 산은 아찔한 칼벼랑과 깊은 골짜기로 이루어져있다. 적초소도 코앞에 있었다.

그이께서 오성산에 오르시려 하자 일군들이 만류해나섰다.

그러나 그이께서는 결심을 바꾸지 않으시였다.

그이께서는 고지에 인민군군인들이 있는데 여기까지 왔다가 내가 고지에 올라가지 않으면 안된다, 최고사령관이 오늘같은 궂은 날씨에 전선의 험한 령길을 다녀보아야 우리 전사들의 생활을 잘 알수 있다고 하시면서 야전차에 오르시였다.

차는 고지정점의 전방지휘소를 향해 령을 톺아오르기 시작했다.

세찬 바람과 폭우에 길이 험해져 차체는 연방 들추어댔다.

옆으로 눈길을 돌리면 깊이를 가늠할수 없는 낭떠러지가 아찔하게 내려다보여 오금이 저려나고 눈앞이 어질어질해왔다.

차가 산중턱에 올라섰을 때였다.

진창길에 차가 헛바퀴질을 하더니 아래로 미끄러져내리기 시작하였다.

차에서 내리신 그이께서는 일군들과 함께 차체에 어깨를 들이대시고 차를 한치한치 올려미시였다.

간난신고끝에 차는 드디여 백쉰두굽이를 돌고돌아 전방지휘소에 이르렀다.

비물에 젖고 흙탕물에 얼룩진 그이의 옷차림을 보며 부대지휘관은 여기가 어디라고 이 험한데까지 찾아오시는가고 말씀올리였다.

그러자 그이께서는 일없다고, 어떻게 좋은 길로만 다니겠는가고, 험한 길도 다녀보아야 한다고 하시였다.

일당백의 열쇠

언제인가 어느 한 인민군부대를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군인들의 훈련을 보아주시였다.

훈련장은 말그대로 총폭탄이 작렬하는 격전장을 방불케 하였다.

그이께서는 슬기와 용맹을 남김없이 발휘하는 군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시종 만족한 미소를 지으시였다.

얼마후 그이께서는 군인들의 훈련을 높이 평가하시면서 내가 늘 말하는것이지만 일당백의 기본열쇠는 전투정치훈련을 강화하는데 있다고, 전투정치훈련을 강화하여야 부대의 전투력을 튼튼히 다지고 적과의 싸움에서 백전백승할수 있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그이께서는 전투정치훈련을 더욱 힘있게 벌려 모든 군인들을 그 어떤 조건에서도 자기앞에 맡겨진 전투임무를 자립적으로 원만히 수행할수 있는 펄펄 나는 일당백의 싸움군으로 키워야 한다고 다시금 강조하시였다.

선군의 길

주체93(2004)년 8월 9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군지휘성원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우리는 지난 10년동안에 고난과 시련도 많이 겪었고 인생체험도 많이 하였다고 하시면서 준엄했던 그 10년을 추억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사실 수령님께서 서거하시였을 때 처음에는 눈앞이 캄캄하고 몸을 가눔하기조차 어려웠다고 하시였다.

당시 세계의 이목은 우리 나라에 집중되였으며 많은 사람들이 과연 조선이 적대세력들의 공세를 물리치고 사회주의를 수호할수 있겠는가 하는 우려를 표시하였었다.

바로 그때 그이께서 택하신것은 선군의 길이였다.

그이께서는 추억깊은 어조로 대결이냐 굴종이냐 하는 판가리갈림길에서 나는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적존엄을 지키자면 인민군대를 강화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고 그에 의거하여 혁명을 이끌어나가야 하겠다는것을 결심하고 단호히 선군의 길을 택하였다, 나는 수령님의 총대중시사상과 건군업적에 토대하여 인민군대를 선군혁명의 기수, 주력군으로 내세우고 군대를 강화하는데 모든 힘을 집중하였다, 지난 10년동안 나는 언제나 인민군군인들과 함께 있었다. …

계속하시여 그이께서는 선군정치에 의하여 마련된 강력한 군력이 있었기에 우리는 정치에서 자주적대를 강하게 세우고 온갖 외세의 간섭과 압력을 단호히 물리치며 그 무엇에도 구애되지 않고 모든 일을 마음먹은대로, 우리의 배짱대로 내밀고있다고, 우리가 군사를 홀시하고 군대를 강화하지 않았더라면 벌써 망한지 오랬을것이라고 하시였다.

본사기자

단 상

철　　　령

철령은 오르면서 40리, 내리면서 40리나 되는 험준한 령이다.

병풍마냥 아아하게 솟아있는 절벽들을 깎아낸 아흔아홉굽이의 령길이 하늘끝에 닿은것만 같다.

올려다보면 가파로운 령길, 내려다보면 아찔한 낭떠러지…

바로 이 령이 아니였던가.

최고사령관이 전선길을 알자면 직접 차를 몰아보아야 한다고 하시며 몸소 운전대를 잡으시고 철령의 험한 길로 차를 몰아가신 이야기며 한 병사를 곁에 세우시고 기념사진을 남기신 사랑의 이야기가 깃들어있는 곳.

과연 철령너머에 무엇이 있기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눈비를 맞으시면서도 철령을 넘으시였던가.

철령너머에 사랑하는 병사들이 그이를 기다리며 조국방선을 지키고있기때문이였다. 그들의 가슴속에 선군이자 존엄이고 애국이라는 철리를 안겨주시기 위해서였다.

바로 그래서였다. 그이께서 사생결단의 각오를 안으시고 무려 십여차례나 철령을 넘고 또 넘으신것은.

이렇게 그이께서 이어가신 선군령도의 길이 있어 조국이 수호되고 민족의 운명이 지켜졌으며 부강번영의 토대가 마련되였다.

정녕 그이의 애국헌신의 자욱과 업적이 력력한 철령을 인민은 영원히 잊지 못한다.

본사기자

주체사상과 민족문제

주체사상은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원리에 기초하여 민족문제에 대한 과학적인 해명을 주고있다.

주체사상은 무엇보다도 민족의 본질에 대하여 밝혀주고 있다.

민족을 옳게 규정하는것은 민족에 대한 견해와 관점, 립장을 바로가지고 민족문제를 해결하는데서 중요한 문제이다. 그것은 민족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 민족의 주체를 이루고있는 성원들이 공동의 번영을 위한 사업에 림하는 자세와 립장이 달라지기때문이다.

따라서 민족을 옳게 규정하는 문제는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주체적력량을 강화하는데서 근본적의의를 가진다.

주체사상은 민족은 피줄과 언어, 령토와 문화생활의 공통성에 기초하여 력사적으로 형성되고 발전하여온 사람들의 공고한 집단이며 생활단위라는 것을 밝히였다.

여기서도 가장 중요한것은 피줄과 언어의 공통성이다.

민족을 규정하는데서 피줄과 언어, 령토와 문화생활의 공통성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여 이 4가지 징표를 다같은 위치에 놓고 보아서는 안된다. 설사 지역적차이가 있고 문화생활에서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같은 언어와 피줄을 이어받고 민족의 넋을 지니고있는 사람이라면 그 어디에 있건 관계없이 한 민족으로 되는것이다.

지난 시기 선행고전가들은 민족을 언어, 지역, 경제생활과 문화생활의 공통성에서 나타나는 심리적성격의 공통성으로 보고 이가운데서 하나만 빠져도 같은 민족이 될수 없다고 하였다. 그 리론대로 민족을 규정한다면 조선민족과 같이 북과 남으로 분렬되여 서로 다른 경제생활과 문화생활을 하고있는 민족은 다른 민족으로 되며 해외동포들도 같은 민족으로 볼수 없다. 결국 이 리론은 리론적으로 부당할뿐아니라 실천적으로도 맞지 않는다.

다른 지역과 제도에서 다른 경제생활과 문화생활을 하고있다 하더라도 같은 피줄과 언어를 가지고있는 이상 그것은 어디까지나 한 민족, 한 겨레이다.

북에 살건 남에 살건 해외에 살건 조선민족의 혈통과 언어를 가지고있는 사람은 다 조선민족인것이다.

주체사상은 민족의 본질에 대한 주체적해명에 기초하여 민족문제에 대해서도 과학적으로 밝혀주고있다.

지금까지 민족의 본질에 대하여서는 많이 론의되여왔지만 민족문제가 어떤 문제이며 민족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제기조차 되지 않았다.

주체사상은 민족문제가 본질에 있어서 민족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는것이라는것을 새롭게 해명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민족문제해결의 궁극적목적은 그 어떤 예속과 구속도 받지 않고 자주성이 보장되는 인민의 리상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는 견해를 확립하였다. 그리고 민족의 대단결을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방도로 규정하였다.

민족문제에 관한 주체사상의 이러한 해명은 사람의 생명에 관한 주체적인 관점으로부터 흘러나온것이다.

주체사상은 사람이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존재이며 자주성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생명으로 된다는것을 밝혔다.

사람의 생명인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은 민족국가를 단위로 하여 진행되며 민족의 자주성이 보장될 때 민족의 발전이 담보되고 민족을 이루고있는 매개 민족성원들의 자주성도 보장된다.

그리고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보다 높은 단계의 요구가 민족의 자주성이므로 자주성이 민족의 생명으로 되는것은 응당한것이다.

이처럼 온갖 형태의 민족적 지배와 예속, 불평등을 반대하고 민족자결의 신성한 권리를 행사하려는 민족의 근본속성인 자주성은 민족의 생명이며 민족문제해결의 종국적목적으로 된다.

주체사상에 의하여 민족의 본질과 그를 가르는 징표, 민족문제해결의 목적과 그 실현방도가 밝혀짐으로써 민족에 대한 옳은 관점과 립장을 세우게 되였다.

본사기자

《빛》과 《어둠》

지난 5월 해외의 한 언론에 다음의 글이 실리였다.

《한 글자의 차이이지만 얼마나 낮과 밤처럼 판판 다른가.》

이 글은 자기의 존엄을 지키는 자존과 남에게 의지하여 존재하는 의존을 두고 쓴것이다.

때로는 작은 차이가 정반대의 큰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

19세기말 조선을 탐방한 유럽의 한 작가는 《호미와 화승총, 이것이 봉건수레를 끌고가는 조선의 모습》이라고 평하였다.

그러나 21세기 조선의 모습은 어떤가. 지난해 12월 영국의 어느 한 협회위원장 더모트 하드슨은 《북조선은 사상으로 위대하고 행성의 절대병기들을 소유한 군력으로 강대하며 자립적민족경제의 저력으로 그 위세가 당당하다.》라고 말하였다.

우의 두 실상은 자존과 의존, 이 선택과 관계된다고 볼수 있다.

돌이켜보면 19세기말-20세기 초엽 당시 봉건관리들은 사대와 외세의존을 나라의 존립방식으로 여긴탓에 1895년 8월 을미사변(일제가 조선황궁을 습격하고 황후를 살해한 사건)과 같은 민족적수치를 당하였다. 1910년 8월에는 일제가 조선강점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침략적인 《한일합병조약》까지 날조하였다.

자주가 없는 곳에 서식하고 확대되는것은 사대와 굴종의 의식이다.

이 리치는 오늘도 흐르는바 지난 3월 한 재미동포언론인은 인터네트에 이런 글을 실었다.

《사대굴종이 <외교>로 포장되고 주종관계가 <동맹>으로 미화되는 땅, <세계화>의 탕수속에… 외색외풍이 휩쓸고있는 땅, 경제는… <외자수혈>이 끊어지면 즉시에 실신, 마비되는 땅에서는 자멸의 길밖에 없다. 허나 북을 보라.》

현재 조선에서는 자기 힘으로 정면돌파전을 벌리고있다. 이것은 자존을 잃은 번쩍거리는 변신이나 배부른 노예살이보다 자유롭고 평화로운 강국을 지향하는 조선인민의 신념과 의지의 표출이다. 최근년간 나라의 방위력이 비상히 강화되고 평양과 삼지연, 중평, 양덕, 순천 등에서 련이어 거창한 창조물들이 완공된것이 그 증례이다.

놓고보면 조선의 자존은 지난 세기에 뿌리깊이 내재하고있다.

백두밀림에서 항일대전의 총성이 울리기 시작했던 그 시기 일제는 항일유격대를 가리켜 《창해일속》(넓은 바다속의 한알의 좁쌀)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 유격대가 자체의 힘으로 손에 무장을 잡고 강적으로 자칭하던 일제와 싸워이겨 끝끝내 나라의 해방을 이룩하였다.

보병총과 원자탄의 대결이라고도 할수 있는 1950년대의 침략세력들과의 전쟁에서도 조선인민은 승리를 이룩하였다. 전후에는 적대세력들이 조선은 100년이 걸려도 일떠서지 못한다고 했지만 모든것이 파괴된 빈터우에서 14년동안에 사회주의 공업화를 완성하였다.

1990년대에 나라의 자주권과 생존권이 엄중히 위협당하던 생사기로에서도 적대세력들이 짜놓은 《붕괴》시간표를 강국건설의 시간표로 바꾸어놓았다.

자존을 생명처럼 여기는 이러한 모습은 세기가 바뀌여도 변함이 없었다.

이를 두고 지난해 12월 한달사이에만도 캄보쟈신문 《크메르 타임스》, 네팔신문 《라즈다니》, 에짚트신문 《알 아흐바르 알마싸이》를 비롯한 많은 외신들이 이렇게 보도하였다.

《그 어떤 정치지진이나 경제풍랑속에서도 자기의 궤도에서 탈선하지 않는 나라》, 《그 어떤 군사적위협도 자위의 억제력으로 물리치고 자주권과 존엄을 산악처럼 지켜내는 나라》, 《대세에 끌려가는것이 아니라 력사의 흐름을 주도하며 강국들의 전렬에 당당히 들어선 기적의 나라》…

하다면 이 자존의 정신은 어디에 시원을 두고 이어지는것인가.

돌이켜보면 나라를 잃고 신음하던 조선인민은 90년전 6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사상을 창시하심으로써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임을 깨닫게 되였다. 이어 자주, 자립, 자위의 길을 개척해나가며 자주정신의 귀중함을 더욱 절감하게 되였다. 그리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선군정치에 의해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이 수호되는것을 체험하면서 자주성을 자기의 생명으로 여기게 되였다. 자력의 력사와 전통속에서 다져온 이 자존의 정신은 오늘 조선의 국풍으로 확립되여 면면히 흐르고있다.

실로 자존과 의존은 나라와 민족의 앞길에서 《빛》과 《어둠》으로 볼수 있다.

본사기자 홍정혁

국제리론물리쎈터 회원 정광혁

정광혁

김일성종합대학 물리학부 응용물리연구소의학물리연구실 연구사 정광혁에게는 남다른 추억이 있다.

함경남도 함흥시의 평범한 가정에서 태여난 그는 어릴 때부터 탐구심이 보통이 아니였다. 사소한 사물현상도 무심히 스쳐보내지 않는 그는 하나를 배워주면 열을 더 알고싶어하였다. 그의 진지한 태도를 두고 왼심을 쓴것은 아버지였다. 아들이 커서 조국에 이바지하는 과학자가 되였으면 하는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였다.

함흥제1중학교에 이어 **김일성**종합대학 물리학부와 박사원에서 공부를 하면서 그는 점차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높은 향학열을 지닌 그는 박사원기간에 《웨블레트변환에 의한 간섭무늬해석에 대한 연구》라는 론문을 발표하였다.

이를 계기로 대학의 인정을 받은 그는 주체103(2014)년 9월부터 이딸리아에 있는 국제리론물리쎈터에서, 1년후에는 세계일류급의 연구기관인 국제고등연구원에서 공부하였다.

영국, 도이칠란드, 스위스, 미국을 비롯한 유럽과 아메리카의 여러 나라 학생들이 주류를 이루고있는 국제고등연구원의 연구생으로 있으면서 그는 생물물리학을 비롯한 경계과학의 높은 경지를 개척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였다.

그러나 그의 연구원생활은 순조롭게 흘러가지 않았다. 사회주의조선에 대한 적대세력들의 제재는 그에게도 어두운 그림자를 던지였다. 비록 어려움은 많았지만 그는 사회주의조선의 지식인다운 존엄과 명예를 걸고 분과 초를 아껴가며 피타게 공부하였다.

하여 졸업말기에 이르러 그는 사람의 기억과 사유, 언어기능을 파괴하는 주요인자인 아밀로이드단백질의 응집물림새와 광학적성질 등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해명하였으며 30살에 국제리론물리쎈터와 국제고등연구원의 공동명의로 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의 박사론문 《모형아밀로이드단백질의 응집체와 물수소결합망 및 그의 광학적성질에 대한 모의연구》는 오랜 세월 학계에 미해명으로 남아있던 문제를 과학리론적으로 해결한것으로 하여 여러 나라의 권위있는 학자들의 찬사를 받았다.

이딸리아사람인 박사론문심사위원회 분과위원장은 《물리화학적 및 생물학적복잡성으로 하여 세계적인 난문제의 하나로 되여온 인간의 로화와 치매에 대한 정광혁의 연구성과는 정말 놀라왔다. 응축물질물리학에서 리용되는 방법들을 치매연구에 적용함으로써 물과 같은 용매가 치매의 발병과 진행에 미치는 영향이 처음으로 밝혀졌다. 치매연구에서 용매의 중요성이 해명됨으로써 치매의 예방 및 치료에 대한 연구가 새로운 전환점에 들어설수 있게 되였다. 정말 훌륭한 박사론문이다.》라고 평가하였다.

국제고등연구원의 한 교수는 조선사람들이 정말 총명하고 학구열이 대단하다고 하였으며 국제리론물리쎈터 소장은 조선의 교육수준과 과학자들의 수준이 매우 높다고 격찬하였다. 그들은 조선의 기초교육이 이렇게 높은줄 몰랐다고 하면서 앞으로 **김일성**종합대학을 비롯한 여러 단위의 과학연구기관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하였으면 하는 의향을 표시하였다.

국제고등연구원에서 공부하던 나날에 정광혁은 미국화학학회지와 영국왕실화학학회지에 학술론문들을 발표하였으며 얼마전에는 권위있는 세계과학기술잡지의 하나인 《네이쳐》에 《소수성경계면에서 음전하를 결정하는 전하이동물림새》라는 가치있는 론문을 발표하였다.

정광혁이 받은 회원증과 박사증 그리고 그의 론문이 실린 잡지들

정광혁은 《나의 목표는 세계물리학계의 권위자들과 어깨를 겨루는것이다.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며 분발하고 또 분발하여 조국의 과학발전을 추동하는데 나의 지혜를 바치겠다.》라고 말하였다.

32살의 전도유망한 과학자인 정광혁은 세계의 이름있는 학자들의 추천을 받아 국제리론물리쎈터 회원으로 되였다.

글 본사기자 김지성
사진 본사기자 임정국

국제리론물리쎈터회원증을 받고

대학생과학탐구상수상자학급

올해 4월 평양출판인쇄대학 기계공학부 기계전자공학과 5학년 1반의 10명 학급전원이 대학생과학탐구상을 받았다.

학급전원이 대학생과학탐구상수상자가 되기는 대학이 창립된이래 처음이라고 한다.

어제날 땅크병출신인 제대군인대학생 김인호는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대학생들이 개발창조형의 인재들로 자라날것을 요구하고있는 오늘의 시대에 맞게 학습경쟁열풍을 일으킨데 있다.》

5년전이였다.

1학기 과정안을 마친 후 그 학급학생들의 성적이 높지 못하였다.

학급의 성적을 두고 누구보다 생각이 많은것은 담임교원 김철민이였다. 그는 자기의 사업에 허점이 있다는것을 알고 방도를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10명 학생들의 성격과 취미, 실력을 놓고 여러모로 분석해본 그는 학급초급일군들인 김인호, 리신혁과 마주앉아 실력을 높이기 위한 문제를 토의하였다.

두 제대군인대학생은 자기들이 먼저 학습열풍을 일으키는데서 앞장서기로 하였다.

그들은 강의를 받은 후에는 많은 시간을 자체학습에 바쳤다.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서로서로 배우고 배워주며 그들은 한층한층 배움의 계단을 톺아올라갔다.

그들의 경쟁열풍은 학급학생들의 학습기풍에서 변화를 가져왔다.

김철민교원은 학급의 모든 학생들이 수행하여야 할 일별, 주별학습계획을 면밀히 세워놓고 요구성을 높이였다. 뿐만아니라 매 학생들이 자기 개인의 실력을 높이는것은 물론이고 학급에 단 한명의 뒤떨어진 학생도 없이 서로 돕고 이끌어나가도록 하였다.

2학기가 지나자 김인호를 비롯한 몇명이, 3학기에는 그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최우등을 하였다.

마침내 그들은 4학기를 마치며 학급전원이 최우등을 쟁취하였다.

학부의 일군인 리철호는 교원 김철민과 학생들에게 최우등생학급의 영예를 지닌데 만족하지 말고 모두가 대학생과학탐구상을 쟁취하기 위해 더 이악하게 공부해야 한다는것을 강조하면서 힘과 용기를 안겨주었다.

김인호, 리신혁을 비롯한 학급의 학생들모두가 대학생과학탐구상이라는 목표를 내세웠다.

학부에서는 매 학생들의 실력과 특성에 맞게 학습계획을 세웠다.

더 높은 목표를 향하여

학급전원이 대학생과학탐구상을 받았다.

학부장 홍태성, 강좌장 한원호를 비롯하여 한명진, 김성진 교원들이 학생들을 개별적으로 맡아 지식과 실천능력을 다같이 갖추어나가도록 지도를 주었다.

그러한 속에 한명진교원은 전국대학생축구로보트경기에 출전한 리호웅, 림진성, 김인호 학생들이 자기의 실력을 최대한 발휘해나가도록 이끌어주었다.

그는 학생들이 축구로보트의 설계와 착상, 제작과 실현을 지난 시기의 기성관례를 벗어나 새롭게 하도록 하기 위한데 연구의 중심을 두었다. 학생들은 로보트들의 부분품을 설계하여 3D인쇄기로 제작하였을뿐아니라 로보트들이 경기시에 무선통신장애를 받지 않도록 하였다. 하여 평양출판인쇄대학팀은 지역별예선에서 여러차례의 경기대전을 치르며 강팀으로 본선경기에 출전함으로써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학습과 과학탐구의 열풍은 시간이 흐를수록 높아갔다.

전국대학생기계설계경연-2018에서 우승을 쟁취한 부철수, 외국어실력이 특출한 리호웅을 비롯하여 학급전원이 교원들의 지도밑에 과학탐구활동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올해 4월에 그들모두는 대학생과학탐구상을 받았다.

그 대학생과학탐구상메달에는 과학으로 비약하고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해나가는 조국의 모습이 비껴있었다.

글 본사기자 연 옥
사진 본사기자 김금진
주체109(2020)년 6월 촬영

상식

종이의 력사

우리 선조들은 오랜 옛날부터 닥나무, 마 등의 식물섬유로 종이를 만들었다.

4세기의것으로 알려져있는 고구려 고국원왕릉(황해남도 안악군 오국리에 있는 무덤)벽화에는 글을 쓴 종이를 쥐고있는 화상들이 그려져있다. 이것은 당시 종이가 많이 보급되여있었다는것을 말해준다.

5세기경에 고구려에서 만들어진 질좋은 종이가 평양시 대성구역에서 발굴되였다. 이 종이는 마섬유로 만든것으로서 섬유가 균일하고 치밀하게 얽혀져있다. 이 종이는 천수백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본래의 흰색을 그대로 보존하고있다. 이것은 당시 제지술과 표백술이 높은 수준에 있었다는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기술은 610년에 화가이며 학자인 고구려의 중 담징에 의하여 일본에 전해졌다고 한다. 고구려의 영향을 받아 신라에서도 일찍부터 종이가 만들어졌다.

고구려의 우수한 제지술은 고려에 계승되여 보다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였다.

고려시기 목판인쇄술의 발전, 금속활자의 발명, 《팔만대장경》을 비롯한 출판사업의 비약적인 발전은 종이에 대한 수요를 급속히 증대시켰다.

고려에서는 닥나무재배를 국가적으로 장려하였으며 유명한 고려종이를 많이 생산하여 다른 나라들에 수출하기도 하였다. 어느 한 이웃나라에서는 임금에게 바치는 종이로 고려종이를 썼다고 한다.

조선봉건왕조시기에 이르러서는 종이원료로 닥나무뿐아니라 참대, 솔잎, 이끼도 사용하여 여러가지 종류의 종이를 많이 생산하였다.

* * *

력사의 대하에 붓을 잠그고

사상예술성이 뚜렷한 한편의 소설책이 대중에게 주는 감화력은 비할바없이 크다.

그만큼 소설은 지나간 력사를 되새기게 하고 그속에서 각이한 인간들의 운명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인생의 교훈과 경험, 래일에 대한 희망을 안겨주기때문이다.

조국에서 널리 애독되고있는 소설들중에는 총서형식의 장편소설들이 있다.

이 소설들은 한번 보면 또 보고싶고 각이한 인간들의 운명문제로 하여 사람들에게 여운을 주고있다.

더우기 이 소설들에 조국인민들이 어버이라고 부르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위인적풍모들이 진실하게 그려져있기때문이다.

이것은 가공된 묘사가 아니다.

이 땅 그 어디에 가나 조국인민들은 자기 고장의 전변에 대하여 말할 때면 늘 위대한 수령님들의 존함을 먼저 입에 올리고있다. 농민들과 탄부들과 허물없이 자리를 같이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신 그분들의 모습을 눈에 흙이 들어간대도 잊지 못하겠다는 인민들의 절절한 토로.

비단 어제날의 이야기가 아니다.

시대와 력사의 현시점에 비추어볼 때 새로 건설된 삼지연시나 양덕온천문화휴양지 그 어디를 가보아도 인민들은 사회주의문명을 누리도록 해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 고마움의 인사를 드리고있다.

이것은 그대로 작가들에게 착상을 주고 훌륭한 작품을 창작할수 있는 조건을 지어주고있다.

특히 4.15문학창작단에서는 인민의 이러한 념원과 시대적요구를 반영하여 총서형식의 장편소설창작을 활발히 벌리고있다.

4.15문학창작단은 지난 시기 위대한 수령님들의 고귀한 혁명생애와 조국과 혁명, 시대와 력사앞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 숭고한 위인적 풍모를 형상한 국보적인 의의를 가지는 총서작품들을 수많이 창작한 관록있는 집단이다.

작품토론회

창작단의 작가들은 실지 있은 력사적사실에 기초하여 자료취재와 고증사업에 힘을 넣으면서 수령의 위대성과 인간적풍모를 보다 풍만하고 진실하게 형상해내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김일성상계관인 작가 남대현선생은 일본에서 살면서 자기가 직접 목격하고 또 조국에 와서 보고 듣고 느낀 자기의 체험에 토대하여 장편소설창작에 심혈을 바쳐가고있다.

김일성상계관인 작가 백남룡선생은 고령의 나이이지만 새 소설창작과제를 말아안고 청춘의 기백으로 창작활동을 벌리고있다. 그는 소설에 현시기 나라에서 중시하는 교육문제, 인재육성문제를 작품의 주제로 삼고 조국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헌신과 로고, 위인적풍모를 사상예술적으로 훌륭히 형상해내고있다.

작가 민경숙

작가 남대현

또한 지난 시기 장편소설 《첫 자욱》을 비롯하여 품위있는 작품들을 창작한 민경숙작가는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의 길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인상을 보여주는 장편소설창작에 붓을 달리고있다.

새 세대 작가들도 로작가들에게 뒤질세라 소설창작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작가들의 불같은 열의가 분출되는 속에 창작단에서는 최근년간에만도 총서 《불멸의 력사》 장편소설 《운명》, 《대박산마루》, 《존엄》, 《보루》, 《한식솔》, 《조선청년》, 《기폭의 붓》과 총서 《불멸의 향도》 장편소설 《아침

로작가의 방조를 받고있는 새 세대 작가들

은 빛나라》, 《력사의 출항》, 《아침노을》, 《영원한 넋》, 《군가뢰성》, 《혈통》, 《유산》이 시대의 걸작으로 창작되여 인민들의 친근한 생활의 길동무로 되고있다.

림봉철부단장은 《새 세대들이 소설을 통해 수령을 알고 력사를 알며 조국을 더 잘 알게 하기 위하여 책임을 다해나갈것이다.》라고 하였다.

글 본사기자 임향심
사진 본사기자 임철명

조선속담 (대담성)

- 개미가 정자나무 건드린다
약한 사람이 힘센 사람에게 대담하게 맞서나가는 경우를 이르는 말이다.
- 산에 가야 범을 잡는다
어떤 일에서나 목적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을 이룩할수 있는 곳에 가서 대담하게 행동해야 한다는것을 비겨이르는 말이다.
- 큰 구멍에 큰 게가 있다
무슨 일이나 통이 크게 벌려야 큰 성과를 거둘수 있음을 비겨이르는 말이다.
- 구데기 무서워 장 못 담글가
자그마한 장애가 있다고 하여 하고싶은 일을 안하겠는가 하는 뜻으로서 할 일은 해야 한다는것을 강조하는 말이다.

위훈을 새겨가는 청춘들

개척자

청년들은 남달리 포부가 크다. 그에 대해 우리는 철도연구원 연구사 류철남의 모습에서 찾아본다.

그는 평양교통운수대학에서 공부하였다.

평시에 진취적이고 탐구심이 강했던 그는 대학 4학년때 전국청년과학기술성과전시회에 지하구조물설계에 관한 독특한 프로그람을 출품시켰다. 그 프로그람의 가치있는 연구종자, 놀라운 경제적효과성은 대번에 전문가들의 관심을 모았다.

그는 더 높은 목표를 제기하고 경제적실리가 큰 연구들을 거듭 진행하여 28살에는 석사, 33살에는 박사의 학위를 수여받았다.

류철남(가운데)

현재 그의 나이는 35살이다. 최근년간 고암-답촌철길의 해상철길다리건설, 양덕온천문화휴양지건설 등 나라의 중요대상건설들에서 어려운 과학기술적문제들을 많이 해결한 그는 오늘도 미지의 탐구의 세계에서 낮과 밤을 이어가고있다.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길을 개척하며 지혜와 열정을 다해가는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의 생각이 자리잡고있다.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로동자의 가정에서 태여난 나를 과학자로 키워준 조국의 부강을 위한 길에 나의 포부와 리상이 있다. 그 길에서 지니게 되는 <개척자>, 이 부름이 나에게는 더없이 소중하다.》

영웅청년

사진의 중심에 있는 처녀가 우리의 주인공-8. 28청년돌격대 대원 김명순이다.

처녀시절은 꽃시절이라는 노래도 있듯이 처녀들은 흔히 화려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지향한다. 허나 사진속의 김명순은 수수한 돌격대제복을 입고 활짝 웃고있다.

어려서부터 예쁜 얼굴에 노래를 잘 불러 앞날의 꿈도 많았던 그는 중학교를 졸업한 후 돌격대원이 되였다.

김명순(앞줄 왼쪽에서 네번째) 주체104(2015)년 촬영

남자들과 꼭같이 삽질, 함마질, 미장 등을 하느라 해볕에 얼굴이 타고 손이 부르튼 그의 모습을 두고 어떤 사람들은 의문을 앞세우군 한다.

그때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5년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한해에도 여러차례나 우리들이 일하는 멀고험한 백두산영웅청년1호발전소건설장을 찾아주시였다. 건설이 완공되였을 때에는 우리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어주시고 언제에 <영웅청년>이라는 글발을 새겨넣도록 하시였다.

그 부름을 되새겨볼 때마다 저는 나라를 위해 더 많은 땀을 흘려야 하겠다는 생각이 든다.》

령도자가 안겨준 그 부름을 안고 김명순을 비롯한 청년돌격대원들은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건설기간에만도 -40℃의 강추위속에서 3년분의 공사량을 다섯달동안에 해제꼈다. 그후에는 삼지연시를 산간문화도시의 표준으로 꾸리는데 참가하였다.

나라의 어렵고 힘든 일터에 자진하여 위훈을 세워가는 여기에 김명순의 미학관이 있는듯 하다.

진주보석

지금도 강원도 문천시에 가면 주민들이 잊지 못해하는 한 청년이 있다. 2년전 9월 뜻밖의 화재가 난 살림집에서 어린이를 구원하고 숨을 거둔 문평제련소 로동자 리명철이다.

남을 위해 자기를 바치는 이러한 소행은 지난 몇해사이에만도 수많은 청년들속에서 발휘되였다. 나라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고저 부모없는 아이들을 데려다 키운 강선땅의 《처녀어머니》, 북방의 산간도시를 훌륭히 꾸리는데 이바지하기 위해 거주지를 옮긴 평양의 세쌍둥이처녀들, 두명의 학생을 위해 꾸려진 섬마을분교로 자원해간 평성시의 처녀교원, 군사복무의 길에서 부상당한 영예군인들의 남편이 되고 안해가 되여준 많은 청년들…

누구나 애국, 애민의 미풍선구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조국의 이러한 청년들을 두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애국적이고 영웅적인 청년들, 진주보석으로 불러주시였다.

《청년전위》, 《믿음직한 계승자》, 《미래의 주인공》, 《사회주의문명의 창조자》, 《헌신의 투사》…

청년들이 위훈을 세우고 미풍을 발휘할 때마다 그리도 값높은 칭호들을 안겨주시며 온 세상이 부러워하도록 높이 떠받들어주고싶다고 말씀하시는 그이의 심정은 그대로 청년중시를 국사중의 국사로 내세우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뜻이기도 하다.

오늘 조국의 청년들은 령도자가 안겨준 영예로운 부름들을 지니고 시대의 개척자, 선구자가 되여 나라의 전진속도를 배가해주고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홍정혁

고려의술로 취장염을 치료

평양의학대학 고려의학부 학부장은 《리근선선생의 치료방법이 많은 사람들의 호평을 받고있다. 그것은 치료방법이 간단하면서도 합병증발생률이 매우 적고 회복기일이 짧으며 효과가 뚜렷하기때문이다.》라고 말하였다.

고려외과학강좌 강좌장인 리근선선생은 취장염으로 고생하는 많은 중증급성, 만성환자들을 고려의술로 회복시켰다.

치료방법은 복부에 꽂은 가는 배액관으로 고려약과 산소를 주입시켜 울체된 취액을 유도해내는 원리에 기초하고있다.

20여년간 백수십차에 걸치는 림상실천에서 치료방법은 90% 이상의 완치률을 보여주었다.

지난 시기 취장염에 대한 수술적치료방법에서는 난문제들이 있었다.

수술후 환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복막유착과 여러가지 합병증은 피할수 없는 위험요소로 되고있었다.

리근선선생은 이런 위험성을 극복하고 환자들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지 않으면서도 완치률을 높일수 있는 방도를 비침습적인 치료방법에서 찾았다.

그것이 중증급성취장염을 고려의학과 신의학의 배합으로 치료하기 위한 림상적연구였다.

연구를 심화시키는 과정에 취액담즙배출작용이 강한 왕대황을 주성분으로 하는 고려약을 개발하고 치료에 적용하였다. 놀랍게도 첫 치료에서부터 효과가 좋았다.

그때부터 그는 지금까지 150명의 중증급성, 만성취장염환자들을 대상으로 치료를 하여 148명을 완치시켰다.

평양시 평천구역 봉학동 73인민반에서 사는 원은숙(녀자 35살)은 《나는 중증급성취장염으로 오래동안 고생하였다. 우연히 리근선선생을 알게 되여 치료를 받게 되였다. 수술로서도 어려운 치료를 선생은 고려약을 리용한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1주일만에 병을 깨끗이 완치시켜주었다. 3년이 지난 오늘까지 나는 재발증상이 없이 아주 편안히 지내고있다. 치료가 소문날만 하다.》라고 말하였다

취장염치료를 하고있는 리근선

이 치료방법은 주체107(2018)년 9월 **김일성**종합대학창립 72돐기념 국제학술토론회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별한 의료기구가 없이도 치료할수 있는 이 방법은 지금 평양과 지방의 많은 병원들에 널리 도입되고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김리정

녀성교육과학자

오춘경

평양교원대학 교육과학연구소 소장 오춘경은 30대의 녀성교육과학자이다.

학생들의 주의를 집중시킬줄 아는 능란한 강의술과 여러 분야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소유하고있는 그는 교육과학연구에서도 재능있는 실력가로 대학의 인정을 받고있다.

김책공업종합대학 정보과학기술대학(당시)을 졸업한 오춘경이 평양교원대학에서 일하게 된것은 10여년전부터이다.

높은 외국어실력과 프로그람작성능력을 지닌 그가 대학의 교육방법연구실(당시)의 연구사로 임명되여 진행한 사업은 선진교육발전추세와 교육과학자료들을 연구하는것이였다.

강의를 진행하는 속에서 교육사업에 필요한 동화상자료들과 원서들을 번역하고 연구분석해야 하는 그의 일은 결코 쉽지 않았다. 이와 반면에 그의 노력은 사람들의 눈에 별로 띄우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품들여 연구한 자료들은 교원들의 교수사업과 자질향상, 교과서와 참고서집필에서 밑거름으로 되였다.

언제인가 한 교원은 그에게 그토록 심혈을 기울인 많은 교육과학연구자료들을 다른 교원들에게 기꺼이 넘겨주고도 그들처럼 이름이 나지 않고 평가도 받지 못하여 섭섭하지 않은가고 물은적이 있었다.

그때 그는 《제 이름이 새 교수방법창조자나 교과서, 참고서집필자의 이름곁에 없으면 뭐랍니까? 제가 한 일이 나라에서 중시하는 학령전어린이교육과 소학교교육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이바지했다면 전 더 바랄것이 없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자기가 하는 일이 교육사업에 이바지되면 그만이라는것이 그의 생각이였다.

이러한 자세는 그후 교육과학연구소 소장으로 일하면서도 변함이 없었다. 오히려 그는 교육과학연구사업에 보다 본격적으로 달라붙었다.

사람의 지적두뇌가 발전하는 중요한 단계인 어린시절에 어떤 교육을 어떻게 받는가에 따라 현실을 보고 대하는 관점과 립장이 달라지며 공고해진다것이 그의 견해이다. 어떤 교육방법이 어린이들의 심리에 맞으면서도 지능을 더 계발시킬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늘 사색을 이어간 그였다.

이 과정에 그는 최근교육발전추세로 되고있는 어린이지능계발기술, 로보트교육기술을 개발도입하여 교수내용의 실용화, 종합화에도 적극 기여하였다. 그리고 어린이들의 오른뇌발달정도를 평가하는 체계, 주산교육지원프로그람을 개발한것을 비롯하여 어린이들의 오른뇌계발과 로보트종합교육을 위한 참고서들도 집필하여 교원들이 교육사업에 적극 리용하도록 하였다.

진취적이고 정열적인 그는 여기에만 만족하지 않고 교수준비에도 많은 시간을 바치였다. 그는 세계적인 교육발전추세와 많은 자료들을 연구분석하면서 우월한 교수방법들을 창안도입하였고 강의에 필요한 자료를 찾기 위해 과학기술전당과 인민대학습당, 교육연구원 등 련관단위들에도 때없이 찾아다니였다.

땀을 흘린것만큼, 노력을 기울인것만큼 열매는 큰것이다.

그의 강의를 받은 많은 학생들속에서 가상현실기술이 도입된 다매체교편물을 비롯한 여러가지 다매체교편물도 자체로 만들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였다.

이렇듯 후대들을 미래의 주인공들로 키워내는 교육과학연구사업에 그는 지혜와 정열을 바쳐가고있다.

글 본사기자 김지성
사진 본사기자 김금진

실기교육 주체109(2020)년 6월 촬영

과학연구토론을 하고있다.

3중세계선수권보유자 박미향

《태권도와 무슨 남다른 인연이 있는가?》

《3중태권도세계선수권을 보유하게 된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수많은 질문들이 지난해 8월 제21차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에서 또다시 선수권을 보유한 평양시태권도선수단 박미향선수에게 날아들었다.

미향의 대답은 퍽 인상적이였다.

《무엇이든 자기가 하고싶은 일이 있다. 민족의 정통무도인 태권도가 내 마음을 무척 끌어당겼다. 단순한 호감으로 시작한 태권도는 오늘 나의 꿈과 리상, 사랑의 전부가 되였다.》

미향이는 처음에 무용을 하였다. 소학교시절 특별히 키가 크고 몸매가 날씬한 그를 두고 사람들은 앞으로 훌륭한 무용수가 될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미향은 좀처럼 무용에 취미를 붙이지 못하였다. 왜서인지 태권도에만 계속 마음이 쏠리였다. 영화나 책을 보아도 태권도와 관련된것이 대부분이였다.

그때 일을 회상하며 어머니는 이렇게 말하였다.

《미향이는 무용배우였던 나보다도 체육을 즐겨한 아버지를 많이 닮았다. 딸이 태권도를 선택했을 때 나는 처녀애가 하필이면 태권도를 하겠는가고 하면서 종목을 바꿀것을 권유했었다. 그러나 태권도에 대한 호감은 이미 어린 딸의 마음속에 소중히 자리잡고있었다.》

박미향

미향은 소학교를 졸업하면서 평양학생소년궁전 태권도소조원이 되였다.

배울수록 태권도는 미향의 마음에 꼭 들었다.

다른 소조원들에 비해 기초동작습득이 빠르고 동작수행이 비교적 정확한 미향이를 감독은 전망있는 선수로 지목하였다.

그러나 동작수행이 매번 쉽고 헐하지는 않았다. 발차기의 높이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 애를 먹던 일도 있었다.

미향은 김영숙(공훈체육인)지도교원이 엄하게 질책하던 일을 이렇게 회상하였다.

《<순간의 충동이나 재미로 배우는것이 태권도가 아니다. 발차기동작 하나 수행 못할바에는 함께 도복을 벗자.>라고 선생님은 사정없이 나를 질책하였다. 순간 나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맹훈련을 하고있는 박미향

제9차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하고 돌아오는 박미향선수(오른쪽에서 두번째)
주체107(2018)년

이 고비를 넘기지 못하면 나의 꿈과 사랑을 모두 잃게 된다고 생각하니 그대로 주저앉을수가 없었다.》

지도교원의 강한 요구성은 그가 각이한 발차기기술을 완성하고 남다른 특기를 소유할수 있게 하였다.

그후 미향은 평양시태권도선수단 선수로 국가종합팀에 망라되여 활동하면서 국제경기들에서 많은 우승을 기록하였다.

주체99(2010)년에 진행된 제9차 청소년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 녀자개인맞서기 46kg급경기에서 3등을 한것으로 첫선을 보인 그는 그후 세계선수권대회와 아시아경기대회들에 참가하여 우승함으로써 특기기술이 위력한 《조선의 무시할수 없는 선수》로 지목되였다.

불의의 공격으로 뛰며 주먹2회찌르기, 재차뛰여 180°돌려차기, 360°돌려차기, 선자리에서 순간돌려차기를 비롯하여 상대방의 심리와 특성에 따라 정확하고 능숙하게 활용하는 그의 특기동작들은 관중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특히 지난해 벌가리아에서 진행된 제21차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 무차별급 녀자맞서기경기와 단체맞서기경기에서 발휘된 그의 높은 경기실력은 전문가들과 애호가들의 인정을 받았으며 그는 또다시 세계선수권을 보유하게 되였다.

국가종합팀에서 미향의 훈련지도를 맡았던 장경옥감독(인민체육인)은 이렇게 말하였다.

《경기마다 언제나 주동에 서서 드세고 맵짠 공격을 들이대는 그의 경기모습을 볼때면 마치 태권도를 위해 태여난 사람같다. 그는 확실히 태권도에 자기의 온넋을 바쳐가고있다.》

3중태권도세계선수권보유자인 그는 지금까지 국제경기들에서 금메달 30여개를 포함한 45개의 메달을 쟁취하였으며 2차례의 개인기술상과 함께 6차에 걸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0대최우수태권도선수로 선정되였다.

글 본사기자 김성경
사진 본사기자 김준혁

우리의 생활

1년만에 찾은 이름

지난해 3월 평안북도 신의주시 방직동 69인민반에서 사는 정경성청년은 날이 갈수록 의혹이 커짐을 어쩔수 없었다. 새해에 들어와서부터 누군가 가끔 자기 집문앞에 짐을 놓고가는것이였다. 그 짐속에는 다리를 쓰지 못하는 자기를 위해 마련한 보약이며 소설책, 음악CD 등이 들어있군 하였다.

그가 인민반사람들에게 물어보아도 간혹 본 사람들은 《미남형의 남학생》이라는 대답뿐이였다.

올해 어느 일요일 정경성은 자기 집문앞에 서있는 한 남학생과 우연히 마주치게 되였다. 그는 다름아닌 자기가 그토록 찾던 주인공이였다. 학생은 방직동에서 얼마간 떨어진 천변동에서 사는 리주성(현재 평북공업대학 정보공학부 3학년 학생)이였다.

사연인즉 리주성은 나라의 중요대상건설장에서 동지들을 위해 한몸을 내대고 다리를 상한 정경성청년의 소행을 전해들은 때로부터 아버지(리룡식), 어머니(천경순)가 마련해준 물자를 안고 그 청년이 미안해할세라 남몰래 걸음을 한것이였다.

그 마음이 너무도 깨끗하고 고마와 정경성의 눈가에는 뜨거운것이 고여올랐다.

리주성은 어려서부터 부모와 함께 평양의 만경대며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를 비롯한 뜻이 깊은 고장들을 찾아 좋은 일을 많이 하여 **김정일**소년영예상을 수여받았다.

누가 알아주건말건 나라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하려는것이 그의 마음인듯싶다.

돌을 줏는 소년

14살이면 어느 정도 철이 든 나이로 볼수 있다. 허나 신의주시 신선초급중학교 3학년 학생 김금송은 2년전부터 지금까지 돌을 줏고있다.

때로 그의 학급동무들과 이웃사람들은 금송의 모습을 두고 의혹을 가지기에 앞서 《장난꾸러기》로 평하군 하였다.

하루공부가 끝나면 내가를 비롯한 여러곳에 나가 하나같이 희고 동글동글한 조약돌들을 골라 맑은 물에 깨끗이 씻어내군 하는 금송, 알고보니 그는 그렇게 품들여 마련한 돌들을 신의주역전광장주변에 심은 많은 나무들과 꽃관목들의 둘레에 놓아주는것이였다. 광장에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이 높이 모셔져있다.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집에서 새끼잉어도 많이 기릅니다.

공부시간에 배웠는데 잉어는 맛있고 영양가가 높답니다. 보

김금송(오른쪽)의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있는 림향옥(앞줄 오른쪽)

통 20~30년, 지어 200년까지 산다는 팔뚝같은 잉어가 온 나라에 욱실거린다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나는 지난해 4월 내가 기른 400마리의 새끼잉어를 가지고 어머니(정성희)와 함께 평양에 있는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가 못에 놓아주었습니다.》

130여통의 편지끝에

주체97(2008)년 봄 함경북도 김책시에서 평양시에로 이사를 오는 림향옥(현재 선교구역 강안1동 15인민반)녀인의 마음속에서는 근심이 떠날줄 몰랐다. 옆집에서 살던 부모없는 처녀가 걱정되여서였다.

그로부터 몇년후 그 처녀가 군관의 안해가 되여 어디로인가 이사했다는 소식을 들은 림향옥녀인은 그를 찾기 위해 편지를 쓰기 시작하였다. 뒤늦게나마 그의 어머니가 되여 정을 부어주고싶었던것이였다.

림향옥녀인은 주소를 알기 위해 걸음도 많이 하였고 그가 있을만 한 곳에 130여통이나 편지를 보내였다. 마침내 평안북도 신의주시 평화동이라는 그의 주소를 알게 되였다.

서둘러 길을 떠난 림향옥녀인은 마치도 오래동안 헤여졌던 친딸을 만난듯 그를 꼭 껴안고 이렇게 속삭였다.

《이제부터 내가 네 어머니다!》

그때로부터 오늘까지 멀리 있는 《자식》을 위해 애쓰는 림향옥녀인의 마음은 참으로 극진하였다.

올해 67살인 녀인을 우리는 지난 6월말 평양-신의주행 렬차안에서 만났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홍정혁

첫 어린이태권도유급자들

평양시 평천구역 미래유치원 앞마당에서 어린이들의 이채로운 태권도풍경이 펼쳐졌다.

하얀 태권도복을 차려입고 재치있게 발차기와 손칼치기를 펼쳐보이는 어린이들의 귀여운 모습을 보며 지나가던 사람들마다 감탄의 박수를 보낸다.

그 주인공들이 조국의 첫 어린이태권도유급자들이다.

미래유치원에서 어린이들에게 태권도교육을 시작한것은 지금으로부터 2년전이였다.

당시 유치원의 실태는 어린이들에게 태권도를 배워주기에는 모든것이 부족한 상태였다.

그러나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민족의 넋과 기개를 심어주고 튼튼한 체력을 가진 미래의 역군으로 키우는데서도 태권도교육은 미룰수 없는 중요한 사업이였다.

교육의 성과여부는 결정적으로 그 담당자들인 교양원들의 태권도실무수준을 올리는데 있었다. 교양원들부터가 태권도기술이 높아야 성과를 거둘수 있다는것은 다른 분야의 교육을 통하여 그들이 이미 체득한 경험이였다.

유치원에서는 조선태권도위원회의 사범들과 련계하여 교양원들을 위한 태권도강습을 진행하였다. 이와 함께 전문연구기관들과의 방조밑에 교양원들속에서 태권도교육방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였다.

운동지도안이 작성되고 교원들의 태권도기술수준도 상당히 개선되였다.

이에 토대하여 유치원에서는 매일 20분씩 선발된 10명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태권도의 기초교육을 주었다.

그러나 눈에 익고 손에 설다고 교육은 뜻대로 되지 않았다.

태권도를 처음 배울 때만 하여도 승벽심을 부리며 열성이던 어린이들이 시간이 감에 따라 열의가 점차 식어지는것이였다. 태권도의 기초기술을 배워주는데만 치중하던 나머지 어린이들의 심리적특성을 정확히 타산하지 못하였던것이다.

문제는 어린이들의 체력단련만이 아니라 민족의 슬기와 재능이 깃든 태권도를 즐겨하는 습관을 붙일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내는것이였다.

새로운 교수방법을 찾아내기 위한 연구가 유치원적인 사업으로 전환되였다.

매 기초기술동작들의 운동학적특성과 묘리, 태권도의 력사적변화발전과정, 우리 나라 무술명인들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수집을 비롯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색이 낮과 밤에 이어 계속되였다. 그 과정에 좋은 교수방법들이 하나하나 창조되고 교양원들의 교육에서는 진전이 일어났다.

동심에 맞는 음악을 리용하여 태권도동작을 배워주는 방법, 어린이들이 1대1로 마주서서 호상 배우는 방법 등 좋은 교육방법들이 창조되여 도입되였다. 이것은 후에 교양원들이 집필한 참고도서 《유급자들을 위한 태권도배우기》(어린이운동지도안)와 다매체교육편집물 《어린이태권도》에서 주요교육방법으로 지정되였다.

이외에도 필수훈련과목인 유연성훈련과 힘키우기운동을 비롯한 체력단련훈련이 동심에 맞게 진행되였다.

점차 태권도훈련에 대한 어린이들의 열의가 높아졌고 기초기술동작들도 하나하나 세련되여갔다. 품을 들인 보람이 있어 드디여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였다.

시범교육을 받던 10명의 어린이들이 태권도를 배우기 시작한지 불과 3달만에 9급이상의 태권도기술을 소유하였다.

이것은 교양원들에게 신심을 북돋아주었다.

이미 적지 않은 경험을 쌓은 이들은 유치원의 모든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태권도교육을 통이 크게 진행하였다.

시작이 절반이라고 교육을 시작한지 1년만에 낮은반의 신유경, 김진은, 최유준어린이를 비롯한 40명의 어린이들이 9급이상의 유급자들로 자라났다.

어린이들만이 아니였다.

원장 김향숙과 교양원 김진옥은 1단을, 다른 교양원들이 3급이상의 태권도급수를 소유하였다.

교양원 김진옥은 《태권도는 어린이들에게 좋은 품성을 키워주고 성장발육에도 대단히 유익한 운동입니다. 앞으로 유치원의 모든 어린이들속에서 민족의 슬기와 재능이 깃든 태권도를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을 키워나가도록 하는데 모든 정열을 바치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미래유치원에서 일고있는 태권도바람, 이것은 민족의 우수성을 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나가려는 교양원들의 애국의 마음이 낳은 결과이다.

글 본사기자 김성영
사진 본사기자 김금진
주체109(2020)년 6월 촬영

새 교수방법을 연구하고있는 교양원 김진옥

유치원의 태권도유급자들

교양원들도 태권도를 소유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수 기

그 끝은 어디에

얼마전 저는 신문에서 군사복무를 하다가 불구자가 된 마이클이라는 유럽사람에 대한 기사를 보게 되였습니다. 제대되여 고향에 온 그가 혈육들에게서조차 버림을 받고 거리에서 동냥으로 산다는 내용이였습니다.

마이클의 모습을 그려보느라니 저는 그와 같은 불구자로서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7년전 12월 저는 군사임무수행중 부상으로 하반신이 마비되여 평양의학대학병원으로 후송되였습니다.

제가 여러차례 수술을 받고 의식을 차린 후 며칠있어 입원실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글쎄 저의 어머니가 들어서는것이였습니다.

순간 저는 담요를 푹 뒤집어썼습니다. 몇년만에 처음 뵙는 어머니였지만 불구의 몸으로 어떻게 나선단 말입니까.

안해 김수향(왼쪽)과 서신의(오른쪽)

그런데 어머니는 이전처럼 《광진아-》라고 부르며 떨리는 손으로 저의 몸을 어루쓸었습니다.

저는 참고참던 눈물을 쏟으며 와락 어머니품에 안기였습니다. 어릴적에 내가를 뛰놀며 바지가 젖어져도 언제나 웃으며 안아주던 어머니, 학생시절에 **김일성**소년영예상을 수여받은 이 아들이 그리도 대견하여 온 동리에 자랑하던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그 엷은 가슴에 더욱 꼭 껴안아주었습니다.

이 몸을 감싸안아준것은 어머니의 손길만이 아니였습니다.

후에 안 일이지만 저를 수술할 때 수혈이 제기되자 많은 의사들과 간호원들 그리고 저의 부대 군인동지들은 조국을 위한 길에 한몸을 내댄 병사에게 병원의 혈장보다 자기들의 더운 피를 넣어주고싶다며 저마다 팔을 내댔다고 합니다.

제가 제대되여 고향에 들어설 때에는 삼륜차에 앉은 저를 온 마을이 떠받들며 반겨맞아주었고 보건일군들은 저의 몸이 허약해질세라 해마다 료양권을 안겨주며 정성다해 치료해주었습니다. 료양의 나날 저는 문천시의 김수향동무를 만나 오늘은 다정한 부부가 되였습니다.

지금도 결혼식날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나라에서는 새 살림집을 마련해주고 이웃들과 동무들, 학교와 병원의 선생님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저를 찾아와 축복해주었습니다. 그들가운데는 5년전부터 알게 된 원산상업봉사대학 학생 서신의동무도 있습니다.

지난 시기 그 동무는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찾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 꽃다발을 드리고 나라의 중요대상건설장들에 대한 좋은 일을 많이 하여 그이께 기쁨을 드린 청년미풍선구자입니다.

이런 훌륭한 동무가 평범한 저를 오빠로 불러주며 정을 기울여줄 때마다 저는 머리가 숙여지군 합니다. 때로는 찬비를 맞으며 품에 안고온 쑥베개를 머리밑에 고여주기도 하고 때로는 제가 대지를 다시 활보하게 해보겠다고 밤새워 약초를 달여 입에 넣어주기도 하였습니다. 저때문에 손이 다 상한 그의 모습을 바라보느라면 절로 눈물이 솟구치군 합니다. 저의 결혼식을 앞두고서는 신의동무의 아버지(서동호)와 어머니(신순영)까지 찾아와 첫날옷이며 텔레비죤, 가정용품들을 마련해주었습니다.

그 끝은 어디인지 알수 없는 뜨거운 이 진정, 이름도 얼굴도 모르던 사람들이 저의 혈육이 되여 삶의 희망을 북돋아주는 이 사랑앞에 정말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식날 《사람들 화목하게 사는 내 조국 한없이 좋네》라는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를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저는 오늘도 이 노래를 즐겨 부르고있습니다.

강원도 원산시 신심동 51인민반 최광진

중국 산동성 청도시 성양구 83-1-501 림성길조카에게

보고싶은 조카에게

그동안 잘 있었소.

조카와 식솔들의 건강은 어떤지 또 하는 일이랑 다 잘되는지.

충길이도 앓지 않는지.

조카들이 조국을 다녀간지 꼭 1년이 되는구만. 그때 본 조카들의 모습이 눈에 선하오.

우리 가정에서는 내가 청도에 갔을 때와 평양에서 조카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을 펴놓고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오. 평양과 해주의 명소들에서 즐거운 한때를 보내며 조국이 정말 아름답다고, 자주 오고싶다고 하던 조카들의 말도 아직 기억에 생생하오.

난 그때 조카들이 단순히 자연의 경치에 흥취되여 한 말이라고는 생각지 않소. 언제나 마음속에 민족애, 조국애를 간직하고있는 조카들이기에 조국에 오면 뭔가 조금이라도 특색있는 기여를 하기 위해 노력하는것이 아니겠소. 그런 모습들을 보느라면 자신보다 먼저 조국을 생각하는 조카들이 돋보이였고 대견스러웠소.

조카들이 그러하듯이 우리 가정도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길에 애국의 마음을 바쳐가고있소. 조카도 알다싶이 제대군관인 나는 황해남도무역관리국 부국장, 조선철건무역회사 고문이라는 중임을 맡아수행하고있소. 일흔을 훨씬 넘긴 내가 일을 하면 얼마나 잘하겠소. 하지만 무역일군이라는 책임감이 나로 하여금 더 분발하게 하고있소.

조선철건무역회사 해주사업소 지배인을 하고있는 아들 명철이는 일판을 크게 벌려놓고있소. 수산자원을 보호할데 대한 나라의 정책을 받들어 조건이 유리한 지역들에 섭, 다시마양식장들을 꾸려놓았으며 강령군에는 5정보의 금당화밭도 조성해놓았소.

수산사업소에서 일하는 맏딸 순애와 둘째딸 순영이, 사위들도 맡은 일들을 잘하고있다오.

여생을 보내고있는 나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것은 손자, 손녀들인가 보오. 친손자는 손풍금을 잘 타 도에서 진행된 여러 공연들에서 사람들의 절찬을 받았소. 요즘은 또 탁구를 배우겠다고 극성이요. 한가지를 배워도 직심스레 배우라고 했더니 글쎄 손자녀석이 제법 사내라면 무엇이나 다 할줄 알아야 한다는게 아니겠소. 외손자 한철해는 주체107(2018)년에 진행된 전국고급중학교 학생들의 태권도경기에서 1등을 하여 금메달을 탔소. 지금은 조선태권도위원회 태권도선수단에서 생활하고있소. 내게 가끔 편지를 보내오군 하는데 앞으로 이름난 태권도선수가 되겠다고 하오.

학교때 공부도 잘하고 6월4일문학상을 받았던 외손녀도 어머니의 뒤를 이어 군사복무를 하고있다오.

손자, 손녀들이 다 하나같이 똑똑하고 재간둥이들이요.

조카, 하고싶은 이야기는 많지만 지면에 다 담을수 없으니 이만 쓰겠소.

나도 그렇고 조카도 건강해서 조국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자는것을 부탁하고싶소.

추억깊은 사진들을 보며

황해남도 해주시 광석동 82인민반 정경옥

오늘의 와우도지구

동포들의 고향소식을 전해가는 우리의 취재길은 남포시 와우도구역에로 이어졌다.

이곳은 중국 심양시에서 살고있는 김명덕의 동생 김광만이 있는 고장이기도 하다.

우리가 처음으로 들린 곳은 조선서해의 명승 와우도였다.

새들의 지저귐소리를 들으며 섬의 중심에 솟은 와우봉에 오르니 민족의 건축술을 보여주는 정각이 있었다. 정각에서 바라보는 경치 또한 장관이였다. 키높이 자란 나무들사이로 멀리 보이는 와우도구역과 대형기중기들이 늘어선 남포항, 정각아래에 펼쳐진 은백색모래불과 수영장…

유원지관리원의 말에 의하면 누가 이름을 지었는지 알수 없으나 소가 누워있는것 같다고 하여 와우도라고 부른다는 이 섬은 지난날 잡초들만 무성하여 뭇새들만 날아드는 한적한 곳이였다고 한다.

그러했던 곳에 보기만 해도 경쾌감을 주는 물미끄럼대와 조약대, 오락기재들이 갖추어진 체육문화시설들이 꾸려져 사람들을 어서 오라 부르고 있다.

그런가 하면 산기슭의 록음속에는 조선기와를 얹은 민족적건축형식에 현대미를 갖춘 국수집과 휴양소가 일떠서 이곳을 찾는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고있다.

한폭의 그림과도 같은 와우도의 모습은 남포시의 자랑이 아닐수 없었다.

와우봉을 내린 우리는 구역의 여러곳을 돌아보았다.

일매진 포장도로를 따라 량옆에 줄지어선 아담한 다층살림집들과 체육문화오락시설들이 갖추어진 체육관, 현대미를 갖춘 극장은 건축형식이 새로와 우리의 눈길을 끌었다.

최근 구역에서는 항구문화도시의 중심지답게 거리와 마을을 일신시키기 위한 사업을 계획성있게 내밀어 많은 성과를 거두고있었다.

올해에 들어와서만도 수십동에 달하는 살림집들과 문화후생시설들을 새로 일떠세우고 지방에서 나오는 마감건재들로 건물내외부를 손색없이 꾸리였다. 이와 함께 도시록화와 도로포장도 따라세워 사람들에게 깨끗한 생활환경을 마련해주었다.

특히 구역에서는 학교들과 병원들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였다.

와우도구역인민병원만 보더라도 건물들과 주변환경을 위생문화적으로 꾸려놓아 마치 공원속에 들어온듯 한 감을 주었다. 그리고 치료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도 다그쳐 많은 진전을 이룩하였다. 병원에서는 안과질병들을 종합적으로 진단할수 있는 안과전자종합진단기와 치과질병치료에 필요한 수자조종식전해연마기, 이발산처리겔을 연구개발하여 환자치료에 리용하고있었다.

우리는 이곳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나오는 해창동 30인민반에서 산다는 84살 나는 김창덕로인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보고 건강의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고 물어보군 한다오. 그때마다 난 <날로 변모되는 우리 고장의 모습을 보느라면 절로 건강해진다. 더 좋은 래일이 기다리는데 왜 젊어지지 않겠는가.>라고 말하군 한다오.》

그러면서 그는 옛날 한적하기 그지없던 이곳에 세계적으로도 이름난 서해갑문이 일떠서고 인민들이 문명을 향유할수 있는 창조물들이 곳곳에 생겨나 구역이 천지개벽을 하였다고 이야기하는것이였다.

로인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보다 아름다워질 이 고장의 래일이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듯싶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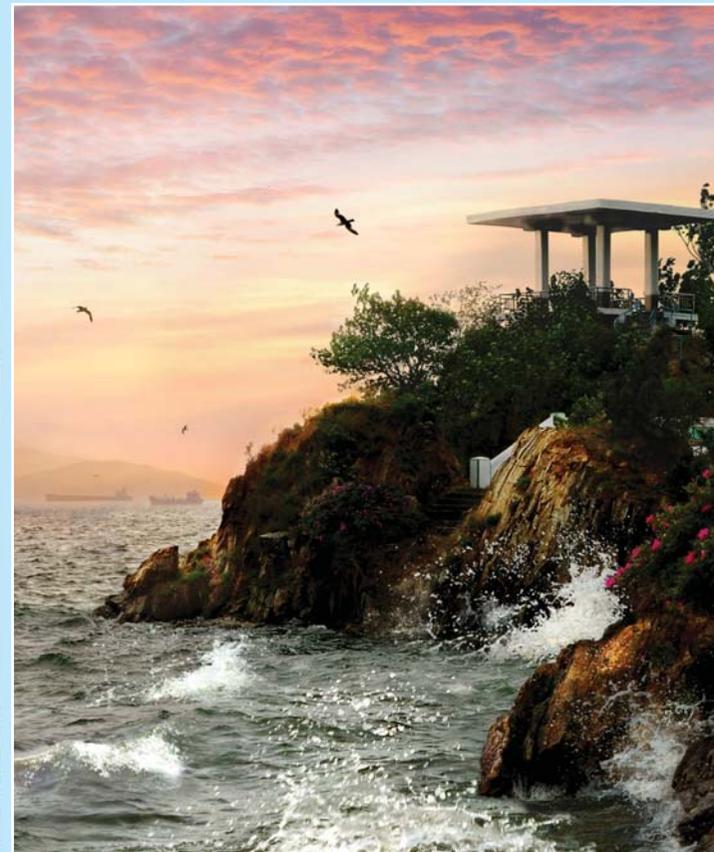
어느덧 시간은 흘러 밤하늘에 뭇별들이 반짝여도 불밝은 창가마다에는 이 고장사람들의 웃음소리, 노래소리가 우리들의 귀가에 정답게 들려왔다.

글 본사기자 김지성
사진 본사기자 임정국

와우도구역의 일부

해수욕장에서

와우도의 저녁

서해갑문

종양치료의 《진단기준표》를 내놓은 의학자

주체88(1999)년 10월 만수대의사당에서는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한 사람들에게 학위학직을 수여하는 모임이 있었다.

모임에서 해주의학대학 의학과학연구소 실장인 김성언은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가 박사론문으로 제출한 종양조직에서 렉틴접수체의 분포에 대한 병리조직화학적연구는 당시 종양학계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그의 연구는 종양의 진단과 감별, 악성도의 평가와 수술후 관정 등 종양치료를 성과적으로 할수 있게 하는데서 학술적의의가 컸다.

종양학계의 권위있는 의학자들은 그의 론문을 두고 국내에서 처음으로 종양치료의 《진단기준표》를 내놓은것으로 된다고 평가하였다.

당시까지만 해도 종양치료에서 관건적인 문제라고 볼수 있는 종합적인 진단체계를 과학리론적으로 확립한 나라는 얼마 되지 않았다.

그가 이 연구론문을 완성하기 전까지에는 많은 애로와 난관이 있었다.

직장, 간, 위, 대장, 유선 등 인체의 각이한 장기와 부위들에서 나타나는 암증상에 대한 연구는 많은 품이 들었다. 무엇보다도 제일 난점으로 나선것이 분석화학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것이였다. 낮에는 자기의 연구과제를 해결하는데 모든 심혈을 기울이였고 밤에는 분석화학에 대한 학습을 꾸준히 하여야만 했다.

그에게는 낮과 밤이 따로 없었다. 그가 있는 장소가 그대로 연구실이 되고 실험실이 되였으며 도서관이 되였다.

김성언

그의 이악한 노력과 스승과 동무들의 방조속에 연구는 5년만에 빛을 보게 되였다.

그는 자기의 연구성과에 대해 자부를 가지고있었다.

많은 의사들이 그의 론문에 기초하여 종양림상에서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환자들을 제때에 치료할수 있었다.

지금의 사업에 대해 물어보았을 때 그는 새로운 연구가 인츰 결말을 볼것 같다고, 하지만 아직은 《비밀》이라고 웃으며 말하였다. 그의 목소리에는 연구결과에 대한 긍정과 자기의 연구활동이 앞으로도 계속될것이라는 확신이 넘쳐있었다.

비록 63살이지만 그의 탐구와 열정에는 로쇠가 없는듯싶다.

그는 네 형제중 둘째이다. 일본에는 그의 어머니와 형님, 두 녀동생들이 있다.

지금으로부터 46년전인 주체63(1974)년 2월, 그는 17살에 혼자서 일본을 떠났다.

조국에서 그는 해주의학대학 교원, 의학과학연구소 실장, 소장, 박사원 원장으로 사업하면서 과학연구와 후비육성에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 나날 그는 《당뇨병에 류산아연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체기능조직학적연구》를 비롯한 가치있는 론문들을 발표하고 《렉틴의 응용》, 《병리조직학》, 《병리검사진단》, 《의학면역학》을 비롯하여 의학도서들과 교과서들을 집필하였다.

그뿐이 아니다. 현대적인 투영기와 만능현미경을 비롯한 각종 실험기구와 교육설비들을 마련하여 대학의 과학교육사업에 리용할수 있게 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존함을 모신 시계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감사문을 받았고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의 대표로 참가하였다.

교수 박사 김성언은 말하였다.

《조국에서는 교육에 큰 힘을 넣고있다. 어릴 때부터 재능의 싹을 찾아 꽃피워주고있으며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가치있는 론문과 발명을 할수 있도록 모든 조건들을 보장해주고있다. 이런 교육제도가 있어 나와 자식들도 돈 한푼 들이지 않고 오늘에로 발전할수 있었다.》

그와 안해는 물론 아들, 딸, 며느리, 사위들이 대학을 졸업하였으며 학위소유자들이다.

글 본사기자 변진혁
사진 본사기자 김금진

교수합평회를 하고있는 김성언

백두산을 우러르라

(전호에서 계속)

백두산에 오르면 세계가 그토록 놀라와하며 알고싶어하는 그 모든 의문들에 대한 정답이 뇌리에 깊이 새겨지고 진리의 빛발을 받아안고 광명의 새 세계를 향해 나가는듯 한 무한한 감격과 희열에 휩싸이게 된다.

제국주의자들이 《붕괴》설을 떠들면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정신으로 미증유의 난국을 돌파하며 산악같이 일어나 부흥의 만년터전을 다진 그 모든 기적과 승리의 장들이 백두산과 잇닿아있다.

백두산이 결심하면 사변은 이루어졌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2000년 3월 백두산에 가셨을 때의 일을 회고하시며 나는 그 어떤 큰 구상을 하거나 작전을 할 때에는 늘 백두산에 가군 한다고, 눈보라가 날리는 백두산정에서 우리 수령님께서 걸어오신 피어린 항일대전을 돌이켜보고 온 나라에 떠받들려있는 백두산의 장엄한 모습을 보느라면 통이 큰 작전과 구상이 떠오르고 그에 대한 신심과 용기도 생기군 한다고 하시였다고 한다.

이렇듯 크나큰 웅지를 안으시고 백두산을 찾고 또 찾으시는 절세위인의 성스러운 발자취따라 폭풍쳐 전진하여온 주체의 위업이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애국애족의 고결한 생애와 존엄과 영광으로 빛나는 북의 빛나는 승리의 년대기들을 길이 전하는 력사의 증견자 백두산,

경애하는 **김정은**령수님께서는 그래서 백두산을 사랑하신다.

자신께서 백두산에 오르는것은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위대한 정신력의 근본원천인 백두의 혁명정신이 어떻게 마련되였는가를 더 깊이 체득하고 온 나라에 백두의 혁명정신과 기상이 차넘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시며 백두산을 찾고 또 찾으시는 **김정은**령수님이시다.

텔레비죤에서 백두산에 오르신 그이의 모습을 뵈옵던 그 감격을 다시금 새겨보라.

온넋은 뜨겁게 불타오르고 심장이 박동친다. 세찬 칼바람이 우박같은 얼음덩이들을 사정없이 날려보내고 산정에 휘뿌려대여 한치앞도 분간하기 어려운 대자연의 광경, 그러나 그이께서는 백두산의 눈보라가 얼마나 맵짠가를 맛보는것이 그

리도 기쁘시여 태양의 미소를 지으신다. 백두산에 올라 백두의 칼바람을 직접 맞아보아야 백두산의 진짜맛, 백두산의 진짜매력을 알수 있으며 조선혁명을 끝까지 완성하겠다는 결심을 더욱 굳게 다지게 된다고 말씀하신다.

아, 얼마나 매혹적이고 우러르고 또 우러르고 싶은 절세위인의 영상인가, 그 얼마나 감동깊은 화폭인가.

백설을 날리며 세기의 하늘높이 솟아있는 백두산에 오른 비행사들과 함께 팔을 끼고 어깨를 겯고 그이께서는 사진을 찍으신다.

백두산칼바람에 외투자락 날리시며 붉은기 휘날리는 인민군답사대오와 함께 계시고 일군들과 함께 또다시 오르시여 날마다 시간마다 변이 나는 북의 승리를 경축하시는 **김정은**령수님.

백두령장의 담력과 기상, 원대한 포부와 필승의 신념, 비범한 령도력에 대해 알려면 그 불멸의 화폭에 어려있는 **김정은**령수님의 절세의 위인상을 뜨겁게 새겨안아야 한다.

싸우는 이북, 승리하는 이북을 알려면 그 불멸의 화폭에서 뿜어나오는 위대한 진리를 체득해야 한다.

그러면 이북을 이끄는 억센 힘에 대하여, 북이 나아갈 길에 대하여, 그 광명한 미래에 대하여 온넋으로 절감하게 될것이다.

이렇듯 백두산을 사랑하시며 마음의 고향으로 안고사시는 **김정은**령수님의 현명한 령도가 빛발쳐 민족사적인 특대사변들이 련이어 일어나 북의 존엄은 백두산처럼 높이 떨쳐지고 백두의 이깔처럼 강직한 군민이 일심단결의 성벽을 이루고있다.

백두의 천지와 같이 빛나는 문명강국이 그 눈부신 자태를 과시하고있으며 백두의 천리수해마냥 행복의 창조물들이 우후죽순처럼 솟아오르고 있다.

우리 민족이 천추만대에 귀중히 간직하여야 할 정신적자양을 끝없이 뿌려주며 백두산은 년대와 년대를 이어 민족의 성산으로 더욱 높이 솟아 빛나고있다.

백두산을 우러르라.

백두산이자 **김정은**령수님이시고 누리에 그 이름 찬연한 이북이다.

우리 민족의 넋이 백두산에 깃들어있고 이북의 정신과 기상이 백두산에 응축되여있다.

민족의 긍지높은 어제와 오늘, 광명한 미래를 뜨겁게 새겨안으려거든 백두산을 우러르라.

이북에서 일어나는 모든 기적과 사변을 안아오는 불굴의 힘에 대해 알려거든, 서방사회가 내돌리는 모략으로 얼룩진 잡소리로 하여 아직도 북의 전도에 대한 편견과 의혹, 우려에 사로잡혀있거든 백두산을 찾아가 보라.

우리 민족은 그 어디에 살든 백두산을 마음의 기둥으로 삼아야 존엄과 기상을 떨칠수 있다.

광풍이 아무리 사나와도 백두산을 허물수는 없다.

반북적대세력들은 《북변화》니 뭐니 하는 허망한 맹신에 사로잡혀 뒤웅박같은 굴속에 틀어박혀 날조극을 꾸며대는 미련한 놀음에 더이상 매달리지 말아야 한다.

나는 이 글을 마감하면서 **김정은**조선의 창창한 미래를 해님의 봄빛이 차넘치던 새 조국땅에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절세의 위인상을 백두산에 담아 칭송했던 열혈시인의 서사시의 한구절을 새겨보는것으로 맺음하려고 한다.

…
《너, 세계야 들으라!
…
내 뿌리와 같이 깊으게
내 바위와 같이 튼튼케
내 절정과 같이 높으게
내 천지와 같이 빛나게
세우리라-
자유의 나라!
독립의 나라!
인민의 나라!》
…

(끝)

재미동포 홍영식

뿔공예 《학》

뿔공예 《학》은 주체89(2000)년 9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의장 양영동(당시)이 드린 선물이다.

소나무와 뽕나무를 받침대로 하여 한쌍의 학이 하늘로 날아오르는 모습을 형상한 선물에는 양영동의장의 진정의 마음이 어려있다.

여러차례 조국을 방문하면서 조국의 위상을 가슴깊이 체험한 의장은 중국남해섬에서만 야생하는 소뿔을 얻기 위하여 우수한 공예가들과 함께 그곳으로 가서 재료를 채취하여 뿔공예를 완성하였다.

그리고 조선로동당창건 55돐을 맞으며 위대한 장군님께서 건강하시기를 바라는 자신뿐아니라 가족의 마음도 담아 그 선물을 드리였다.

선물은 국가선물관에 보존되여있다.

*　*　*

누구나 즐겨찾는 평양골프장

지난해에 새로 개건된 평양골프장은 남포시 강서구역 태성리에 자리잡고있다.

근 200정보의 부지를 차지하고있는 골프장은 한번에 200여명을 수용할수 있다.

전반 9개 홀과 후반 9개 홀로서 모두 18개 홀(연장길이 6 777yd)로 시원하게 뻗어나간 골프주로는 국제경기도 원만히 할수 있게 독특하게 구성되여있으며 주로에 있는 모래장애물과 수림장애물을 비롯한 여러가지 장애물들은 사람들에게 골프에 대한 매력을 더욱 짙게 해주고있다.

골프장에는 물놀이장과 당구장, 탁구장, 운동실, 식사실들이 갖추어진 종합봉사건물과 기재봉사와 판매를 진행하는 골프봉사건물도 있다.

숙소는 손님들에게 편리하게 일반숙소와 가족숙소로 되여있어 누구나 이곳에 들어서면 집에 들어선것 같은 느낌을 받고있다.

태성호반과 석천산기슭을 끼고있어 주변경치가 볼만 하고 항상 맑은 공기가 흘러 기분도 상쾌한 이곳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오고있다.

글 본사기자 김승기
사진 본사기자 변찬우

남은것은 무엇인가

프랑스의 국제관계 및 전략연구소는 일본이 대양 및 북극에서의 작전체계까지 보유한 완전한 능력을 갖추었으며 이러한 공격능력강화는 일본방위의 형태변화를 시사한다고 하면서 작전능력을 높이기 위한 《자위대》의 활동은 헌법에 위반되는 행위이지만 비법적인 군사행동을 서슴없이 강행하고있다고 폭로하였다.

오늘 일본은 해상무력의 함선수에서 세계적으로 앞선 급에 속하며 최신형전투함선들과 잠수함, 쇄빙선, 각종 해상비행무력만 해도 그 수를 헤아릴수 없다.

지난 세기 광활한 아시아대륙을 피로 물들인 침략국, 전범국으로서 교전권과 참전권은 물론 정규군도 가질수 없게 된 일본이 이제는 세계에서 다섯손가락안에 드는 거대한 군사적실체로 되였다.

일본의 무분별한 군사적망동이 더욱 로골화되고있는 속에 지난 4월에 일본항공《자위대》가 오끼나와주변상공에서 훈련을 벌리였고 이에 앞서 지난 2월에는 조선과 중국을 겨냥한 사상 최대규모의 훈련이 진행되였다.

그뿐이 아니다.

일본은 중동해역에로 해상《자위대》 함선들을 련속 출동시키였다.

《해적대처》와 《방위》의 간판밑에 4월말에는 《오나미》호가 요꼬스까기지에서 아덴만을 향해 떠났고 5월 중순에는 《기리사메》호가 사세보기지를 출항하였다.

그러면 세인을 우롱하는 《해적대처》와 《방위》라는 면사포속에는 과연 무엇이 은페되여있는가.

활동반경이 보다 넓어지는 일본의 군사적움직임에는 군사대국화와 재침야망을 실현해보려는 속심이 짙게 숨겨져있다.

일본은 쩍하면 《주변위협론》을 운운하면서 오끼나와현의 미야꼬섬을 비롯한 해외침략에 유리한 중요거점들에 무력을 증강하고있으며 렬도의 하늘과 땅, 바다에서 각종 군사훈련을 빈번히 강행하는 등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고있다.

력대로 일본은 침략야망실현에 《주변위협론》을 리용해왔다.

지난 세기 청나라와 짜리로씨야의 위협을 운운하며 조선을 군사적으로 강점하였고 제2차 세계대전을 기화로 아시아대륙을 깔고앉으려고 미쳐날뛰였다.

랭전종식후 일본은 때없이 공화국과 주변나라들의 《위협과 도발》을 떠들며 전쟁국가수립을 더욱 다그치고있다.

일본은 이미 2013년말에 《일본을 둘러싼 안전보장환경의 악화》를 운운하면서 《안전보장》의 중점을 국내안전으로부터 《국제안전》으로 확대한 《방위계획대강》을 작성하였다.

이에 따라 군국화와 재침의 길에 장애로 되는 정책적, 법적장애물들을 제거하는 한편 《자위대》의 해외군사작전범위를 야금야금 계속 확대해나가고있다.

지금 이 시각도 일본《자위대》 함선과 해상초계기들은 오만만과 아라비아해북부, 아덴만일대를 제세상처럼 활개치며 항행선박들과 해상교통로들에 대한 감시, 정보수집에 열을 올리고있다.

이렇게 돌아치던 무력이 《예측불가능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무기사용이 가능하다.》는 당국의 지침에 따라 어느 순간에 침략의 도화선에 불을 달지는 누구도 예측할수 없다.

누구의 그 무슨 《위협》이나 《방위》를 방패로 내들고 재침야망을 기어이 실현하려고 책동하는 섬나라 일본에게 이제 남은것이란 해외침략의 길에 나서는것뿐이다.

국제사회는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도발의 기폭제로 된 로구교사건이나 진주만사건이 또다시 일어나는것을 절대로 바라지 않고있다.

본사기자

일본침략자들의 강도적인 《운양》호사건

우리 인민의 거족적인 투쟁에 의하여 임진조국전쟁에서 패한 후 수백년동안 침범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있던 일본침략자들은 19세기에 들어와 조선의 기름진 땅과 자연부원에 눈독을 들이면서 저들의 침략적본색을 또다시 로골적으로 드러내놓았다.

1868년 명치유신으로 불철저한 부르죠아혁명을 거친 일본군국주의는 무력으로 조선을 정복해야 한다는 《정한론》을 부르짖으면서 조선에 대한 침략의 구실을 찾기 위한 책동을 광란적으로 벌리기 시작하였다.

그 일환의 하나가 바로 1875년에 도발한 《운양》호사건이였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1875년 4~5월기간에 《운양》호를 비롯한 여러척의 군함을 끌고 부산으로부터 원산에 이르는 조선동해안일대를 싸다니면서 비법적인 연해측량과 무력시위를 감행하였다.

이것은 본격적인 침략에 앞서 조선봉건정부의 반응상태를 알아내기 위한 도발적인 군사정찰행위였다.

일본군함들의 로골적인 군사도발책동이 계속되였으나 당시 조선봉건왕조정부는 일본침략자들과의 충돌이 저들의 정권안정에 불리하다고 보고 도발자들과의 타협을 추구하였다.

침략자들은 저들의 군사적도발에 대하여 조선측에서 아무런 대응조치가 취해지지 않자 이것을 기회로 더욱 오만무례하게 나왔다. 이해 8월에 《운양》호는 중국의 우장까지 가는 배길을 측정한다는 구실밑에 또다시 조선연해에 침입하였다.

침략자들은 이 시기 우선 조선에 불평등적인 《조약》을 강요하는것을 당면목표로 내세우고 그 구실을 만들 흉악한 목적으로부터 《운양》호선원들에게 될수 있는대로 더 횡포하게, 더 포악하게 행동할것을 지시하였다. 《운양》호는 비법적으로 우리 나라 연해깊이 침입하여 수심측량과 무력시위를 감행하면서 조선남해를 거쳐 강화도로 향하였다.

8월 20일 《운양》호는 월미도앞바다에 침입하였으며 다음날에는 강화도앞바다에 기여들었다. 여기서 일본침략군 20여명이 작은 배에 옮겨타고 초지진포대에 대한 상륙을 시도하였다.

이곳은 조선봉건왕조의 수도 한성의 주요관문인 군사요충지로서 조선의 배들도 사전에 승인을 받고서야 통과할수 있는 곳이였다.

일본침략자들이 아무런 예고도 없이 초지진포대에 저들의 륙전대를 침입시킨것은 전적으로 군사적도발을 목적으로 한것이였다.

그러나 초지진군사들의 용감한 투쟁에 의하여 일본침략자들은 저들의 목적을 이루어낼수 없었다. 초지진을 점령할 가망이 없게 되자 일본침략자들은 그 이튿날인 8월 22일 방어시설이 없는 작은 섬인 항산도를 불의에 습격하여 평화적주민들을 죽이고 살림집들을 불태우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또한 8월 23일에는 영종진을 습격하였다. 적들은 함포를 마구 쏘아 영종진포대를 완전히 파괴한 다음 섬안에 기여들어 600여명의 주민들을 모조리 학살하고 인민들의 재산을 닥치는대로 파괴략탈하는 범죄를 감행하고 25일에 제 소굴로 도망쳤다.

일본침략자들의 포악성과 야만성, 강도적본성을 그대로 드러낸 《운양》호사건은 조선침략의 구실을 마련하기 위하여 감행한 계획적인 무장도발행위였다. 이때로부터 일본침략자들의 조선침략은 그 침략무력을 배경으로 한 강도적인 방법으로 감행되기 시작하였으며 마침내 1876년에는 침략적인 《강화도조약》을 강요하는데까지 이르렀다.

《강화도조약》은 우리 나라의 자주권과 리익을 전면적으로 침해한 불평등적이며 예속적인 《조약》이였다. 《조약》에는 조선의 항구들을 일본상인들의 《자유무역》을 위하여 개방하여야 한다는것이 규정되였다.

이처럼 《운양》호사건은 철두철미 일본군국주의가 조선과 침략적인 불평등조약을 체결할 구실을 만들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조작한 무장도발책동이였다.

사회과학원 연구사 리일심

력사인물

애국적인 언어학자 주시경

주시경(1876년-1914년)은 황해도 봉산군(당시)의 선비가정에서 태여났다. 13살때 고향을 떠나 한성에서 한문과 유학을 공부하였다. 이때부터 그는 한문대신 우리 글을 깊이 연구하여 배우기 쉽고 쓰기 편리하게 다듬을것을 결심하였다.

1895년에 배재학당에 들어가 신학문을 공부하면서 그는 국문통일운동을 발기하고 학생들속에 국어의 보급과 연구를 조직지도하였다.

졸업후 1904년부터 자신이 직접 한성의 보성학교와 상동학원에 국어일요강습소를 내오고 조선말강사로 활동하였다.

1907년-1909년에는 당시 조선봉건정부의 교육관계기관인 학부안에 조직된 국문연구소의 위원으로 있으면서 《국어와 국문의 필요》, 《국어문법》 등 많은 책과 론문들을 써서 학생들과 인민들속에 국어를 보급하였다.

당시 사람들은 그가 항상 책을 보자기에 싸가지고 다닌다고 하여 《주보따리》라고 불렀다.

1910년 일제가 《한일합병조약》을 날조한 후에도 조선말강습원, 국학연구원을 조직하여 청년들과 인민들속에 반일애국사상을 불러일으키며 조선말을 교육하는데 힘을 기울였다.

일제의 조선어말살책동이 로골화되자 그는 말과 글은 자주국가가 되는 표식이며 따라서 나라를 지키려면 자기 나라의 말과 글을 지키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하면서 국문운동을 더욱 널리 벌려나갔다.

이와 함께 민족어를 고수하고 보존정리, 체계화하기 위한 실천적인 연구와 노력도 많이 하였다.

자기 서술들에서 한자를 적게 쓰고 될수록 우리 글자로 쓰려 하였고 혼란된 맞춤법을 정리하려는 의도밑에 서사규범도 연구하였다. 또한 우리 글자를 가로 풀어쓰기 위한 시도를 하였으며 다른 학자들과 함께 주석(뜻풀이)사전 《말모이》를 편찬하였다.

그는 근대언어학의 기초를 닦는데 이바지하는 여러편의 저서를 남기였다.

대표적으로 《말》, 《안남망국사》, 《한문초습》, 《국어문전음학》, 《국어문법》, 《말의 소리》 등을 들수 있다.

그의 유고들은 주체46(1957)년에 간행한 《주시경유고집》에 수록되여있다.

* * *

상 식

민족음식 약밥

약밥은 우리 민족의 고유한 음식이다.

약밥은 찹쌀, 참기름, 꿀, 사탕가루, 대추, 밤, 간장 등을 넣고 만든다.

선조들은 오래전부터 약효능이 높은 꿀이 들어간 밥이라고 하여 약밥으로 불렀다.

우리 나라에서 약밥을 만들기 시작한것은 삼국시기로 전해지고있다.

약밥은 맛이 좋으며 영양가가 높은 음식이다.

이 음식은 식으면 굳어져 맛이 덜해지므로 뚜껑이 있는 그릇에 담아 더울 때 먹어야 한다. 식은 약밥은 다시 덥혀서 먹어야 한다.

약밥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깨끗이 씻은 찹쌀을 3시간정도 물에 불군다. 밤은 속껍질까지 벗겨 두쪽을 낸다. 대추는 씨를 뽑은 다음 절반은 잘게 다지고 절반은 두쪽으로 쪼갠다. 찹쌀을 쪄서 밥을 지은 다음 식기 전에 큰 그릇에 퍼담고 사탕가루를 골고루 섞어 밥알이 서로 붙지 않도록 한다. 간장으로 밥의 간을 맞춘 다음 밤과 대추, 참기름과 꿀을 고루 섞어 단지에 담고 뚜껑을 덮는다. 큰 솥에 약밥단지가 70%정도 잠기게 물을 붓고 열을 가한다. 물이 계속 끓을 정도로 불을 조절해가면서 8~10시간정도 끓인다. 20~24시간동안 찌면 약밥의 색갈이 더욱 곱게 된다. 약밥이 다되면 뚜껑이 있는 그릇에 담고 그우에 잣알을 놓은 다음 계피가루를 뿌린다.

선조들은 약밥을 명절음식으로 리용하였다.

* * *

수천년의 력사를 가진 누에치기

예로부터 조선비단은 가볍고 질길뿐아니라 아름다운 무늬와 부드러움, 건강에 좋은 천연섬유제품으로 세상에 널리 알려져있습니다.

간혹 우리는 조선비단으로 만든 명주옷을 즐겨입으면서도 비단천을 짤 고치실을 제공해주는 누에의 《수고》에 대해 잊고있습니다.

그래서 이번호에는 수천년의 력사를 가지고있으며 몇해전에 국가비물질문화유산으로 등록된 누에치기에 대해 보려고 합니다.

누에란 고치실을 얻기 위하여 치는 벌레들을 통털어 부르는 말로서 알, 새끼벌레, 번데기, 엄지벌레 등 4단계를 거쳐 한 세대를 끝마치는 완전모습갈이곤충입니다.

다 자란 누에는 태여나서 죽을 때까지 먹어야 할 량의 80%를 먹는다고 합니다. 누에는 영양물질을 섭취하며 자라는 동시에 번데기, 나비 및 알단계에서 소요되는 영양물질까지 축적하며 고치트는데 필요한 견물질을 생성합니다. 먹이를 충분히 먹은 누에는 익은누에가 되여 점차 몸이 줄어들면서 고치를 자리를 잡고 실을 토합니다. 고치를 다 튼 누에는 고치속에서 다시 허물을 벗고 번데기로 됩니다. 고치속에서 허물을 벗을 때까지를 새끼벌레단계 즉 누에단계로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누에를 키워 고치를 생산하는 과정을 바로 누에치기라고 말하고있습니다.

누에치기는 크게 누에알깨우기와 누에떨기, 어린누에치기, 큰누에치기, 누에올라가기, 고치따기공정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누에치기는 5천년이상의 력사를 가지고있는데 그에 대한 근거는 과학적으로 립증되여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자연기후적조건은 누에치기에 매우 알맞으며 북쪽의 압록강, 두만강연안으로부터 남쪽의 제주도에 이르기까지 가는 곳마다에 뽕나무, 가둑나무, 가중나무, 오수유나무 등 누에먹이식물들이 많이 자라고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원시시대부터 농업의 기원과 함께 발생발전한 누에치기는 나라의 근본으로 매우 중시되고 장려되여왔습니다.

옛 문헌들의 전설들에는 《단군은 창을 메고 전장에 나가고 그의 처는 집에서 누에를 쳤다.》라고 씌여져있으며 후조선시기의 력사적사실을 전하는 기록들에는 B.C. 12세기경에 이미 조선에서 누에치기가 진행되였다고 서술되여있습니다.

슬기롭고 근면한 우리 선조들은 메누에를 순화시켜 조선특유의 뽕누에를 만들었으며 각종 야생뽕나무를 리용하여 누에를 쳤습니다.

신석기시대, 청동기시대유적들에서 발굴된 각종 질그릇들의 밑창에는 누에그림, 누에무늬장식들이 새겨져있는데 그것은 누에치기의 오랜 력사를 보여주고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우수한 누에치기기술이 일본에 전파되여 일본의 문명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일본의 옛 문헌들에는 조선사람들이 일본에 누에치기를 전파하였다는것이 두드러지게 반영되여있으며 뽕누에치기와 비단실생산은 B.C. 5세기부터 A.D. 7세기까지 1 200년동안 조선사람들이 일본에 보급시킨 문명의 하나라고 서술되여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누에치기는 삼국시기를 거쳐 고려, 조선봉건왕조시기에 더욱 발전하였으며 누에고치에서 뽑은 명주실로 짠 비단은 그 아름다움과 질로 하여 세상에 유명하였습니다.

오늘도 누에치기는 알곡농사를 할수 없거나 농사가 잘 안되는 산비탈, 묵은밭, 강기슭 등에 누에먹이기지를 조성하여 산간지대농장들의 경제적토대를 강화하고 이 지대 농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는데서 적지 않은 작용을 하고있습니다. 자강도안의 강계시와 만포시, 시중군을 비롯한 조국의 여러 지방은 누에치기에 매우 적합한 지대로 꼽히고있으며 생산된 고치는 견방직공업발전에 이바지되고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번에 누에치기에 대해 잘 알게 되였을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비단옷을 입을 때마다 이번호에 실린 누에치기에 대해 다시한번 상기하게 되길 바랍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연옥

조국의 각 도 특산물들 (19)

- 함경북도의 특산물들 -

명태는 맛있고 영양가높은 물고기로서 우리 나라 함경북도지방의 특산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매우 오래전부터 명태를 식생활에 리용하여왔다.

옛 문헌들에 명태에 대한 기록이 보이기 시작한것은 17세기부터였다. 18세기부터는 함경도지방에서 그 생산량이 급속히 확대되였으며 길주, 명천, 청진, 성진 등 많은 지방들이 주요명태생산지로 되였다. 당시 함경도의 명태는 전국의 수요를 충당하였는데 18세기 전반기의 실학자인 리중환(1690년-1753년)은 《택리지》에서 전국의 모든 곳에서 함경도의 명태가 팔리였다고 하였다. 19세기 중엽의 학자 조재삼은 《송남잡지》에서 아무리 깊은 산골이나 궁벽한 고을에서도 만족하게 먹지 않는 곳이 없다고 하였다.

옛 문헌인 《일성록》에 의하면 18세기 우리 나라의 제일 큰 명태어장은 명천, 길주어장이였다.

명태가 많이 생산된 함경북도에서는 그 가공음식도 발전하였다.

명태로 만든 함경북도의 유명한 음식으로는 명태매운탕, 명태순대, 명태회, 명태식혜와 명란젓, 창난젓을 들수 있다.

칠보산의 송이버섯

맛이 신선하고 영양가가 높으며 약용가치가 있는 칠보산의 송이버섯도 함경북도의 특산물들중의 하나이다.

송이버섯의 살은 두텁고 흰색이며 단단하고 특수한 향기를 낸다.

칠보산에서 생산되는 송이버섯은 사람들의 건강장수에 필요한 에르고스테롤을 비롯한 비타민성분들이 많다. 이밖에도 송이버섯기름은 좋은 향미제로 리용되고있다.

칠보산의 송이버섯은 맛이 신선하고 영양가가 높으므로 여러가지 볶음, 통졸임 등을 만들어 먹으며 말리워 가루를 내서 양념감으로도 쓴다.

송이버섯은 몸을 튼튼하게 하고 소화기에 좋은 영향을 주며 아픔을 멎게 하고 가슴이 답답할 때와 가래가 성할 때 쓰면 효과가 있다. 그리고 항암약이나 리뇨약으로도 널리 쓰인다.

함경북도의 특산물인 회령백살구는 봄이면 꽃이 피여 풍치를 돋구고 열매는 맛이 좋은것으로 하여 리용가치가 높다.

회령백살구는 함경북도의 회령시를 비롯한 우리 나라 북부와 중부지대에서 많이 재배되고있다.

꽃은 잎이 피기 전 4월 하순경에 핀다. 열매는 7월 중순경에 익으며 둥글다. 알당 질량은 60g정도이다. 열매의 살은 연한 누런색이며 물기와 단맛이 많고 신맛이 적다.

회령백살구는 먹기에도 좋을뿐아니라 유기산과 비타민C, 펙틴을 비롯한 약성분들이 많아 사람들의 건강에도 대단히 좋다.

공기가 잘 통하고 몸에 붙지 않아 여름철옷감으로 리용되고있는 베천도 함경북도의 특산물이다.

베천은 역삼을 가지고 낳은 베실로 짠 마직물이다.

베천은 우리 나라에서 원시시대말부터 생산되였으며 고려시기에는 이웃나라에도 널리 수출되는 주요품목으로서 가장 생산량이 많은 직물이였다. 성글게 짠 추포는 화폐상품으로까지 되였다.

조선봉건왕조시기에도 우리 나라 각지에서 널리 생산되던 베천은 17~18세기에 이르러서는 함경도가 기본생산지로 되였다. 다른 지역들에서는 견직물과 면직물생산이 늘어난 반면에 기후관계로 목화재배를 할수 없었던 함경도에서는 주로 역삼을 원료로 베천을 짜는 마직물업이 발전하였다.

회령백살구

특히 부령, 회령, 온성, 경원 등 륙진지방은 그 생산기술이 가장 발전된 곳으로 알려졌다.

함경도지방에서 생산된 륙진세포, 단포, 길포, 경포와 같은 질좋은 베천들은 개성상인들을 통하여 전국각지에 류통되였다. 역삼실을 가늘게 낳아 섬세하고 정교하게 짠 륙진세포를 두고 일명 《통포》, 《바리내포》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그것은 큰 대통이나 밥바리안에 들어갈만 한 하나의 실꾸리로 베 한필을 짤수 있다는데서 유래되였다. 이렇게 발이 매우 가늘고 정교한 베천인 륙진세포는 함경도녀인들이 손으로 짜군 하였다.

19세기 중엽에 편찬된 리규경의 《오주연문장전산고》에서는 《륙진지방의 베는 우리 나라에서 제일 유명하였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종성의 통포는 가늘기로 이름났다.》고 하였다.

당시의 종성은 오늘의 함경북도 온성군 종성로동자구를 말한다.

사회과학원 민속학연구소 연구사
박사 부교수 김선영

야 화

애꿎게 팔린 림제의 친구

조선봉건왕조시기의 작가 림제에 대한 이야기이다.

어느날 림제가 친구와 함께 어느 한 골목을 지나는데 어떤 재상집에서 큰 잔치를 차리고 많은 손님들을 청해다 대접하는것이였다.

물론 그 재상은 림제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였다. 그러나 림제는 친구에게 엉뚱한 거짓말을 하였다.

《내가 이 댁 주인과 친분이 두터운 사이이니 그냥 지나칠수 없네. 자네도 나를 따라 이 잔치에 참석하지 않겠나?》

친구도 마침 궁금하던터이라 그렇게 하자고 승낙하였다.

《그러면 자네는 대문가에서 좀 기다리게. 내가 먼저 들어가 인사를 드린 다음 부를터이니.》

림제의 말에 친구도 그럴듯하게 여기고 고개를 끄덕이였다.

이리하여 림제는 잔치집으로 들어가고 친구는 대문가에서 기다리게 되였다.

집안에 들어간 림제는 주인과 손님들에게 인사를 한 다음 자리를 차지하고 앉았다.

술이 서너순배 돌았는데 어떤 손님이 주인에게 귀속말로 물었다.

《저이가 주인의 친구입니까?》

그러자 주인은 도리질을 하였다.

주인이 오히려 여러 손님들에게 조용히 물었으나 누구도 안다는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서로 알아보고는 별사람도 다 있다는듯이 주인과 손님들이 눈길을 맞추면서 난데없는 불청객을 은근히 비웃었다.

이를 눈치챈 림제가 비로소 웃으며 입을 열었다.

《여러분이 나를 보며 웃고있지만 그렇게 비웃을건 없습니다. 나보다 더 우스운 사람이 있습니다. 저기 대문가에서 기다리면서 내 입만 바라보며 행여나 얻어먹게 될가 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줄 여러분들은 모르시는구려.》

안방의 주인도 손님들도 모두 크게 웃었다.

술잔들이 오가고 이야기가 벌어지는 가운데 주인과 손님들은 림제가 보통사람이 아니라 호걸스러운 선비인줄 알게 되였다.

주인은 서둘러 대문가에서 기다리는 림제의 친구를 불러들이게 하였다. 그런 다음 주인과 손님들은 밤이 지새도록 즐겁게 놀았다.

누구도 말을 내지 않았으므로 그 친구는 림제가 정말 주인과 친분이 두터운줄로만 알았지 자기의 얼굴이 팔린줄은 종시 깨닫지 못하였다.

*　　*　　*

강원도의 력사유적을 찾아서 (5)

- 묘길상 -

묘길상은 금강산의 절벽에 돋우새긴 고려시기의 돌부처조각이다.

조각은 강원도 금강군 내금강리에 있다.

올방자를 틀고앉은 모습에 오른손은 우로 쳐들고 왼손은 아래로 내리우고있는것으로 형상된 조각은 높이가 15m이며 너비는 9.4m이다.

부처의 웃는 얼굴과 이마의 《백호》, 길다란 눈섭과 가늘게 째진 실눈, 류달리 길게 드리워진 큰 귀와 통통한 볼, 밭은 목에 앞가슴을 드러내고 두어깨에 걸친 옷의 주름을 비롯하여 묘길상은 고려시기의 아미타여래조각에서 일반적으로 볼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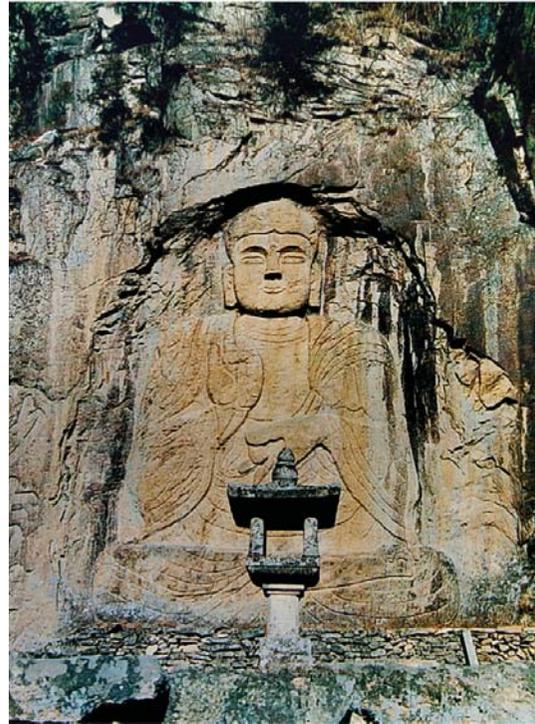
조각은 벼랑에 새긴 다른 부처들보다 훨씬 크면서도 앉은 모습에서 높이와 너비의 비례를 잘 맞추었다. 그리고 얼굴부분은 섬세하고 부드러운 맛을 나타냈다면 아래의 옷부분은 굵고 굳세게 하는 대조적인 수법을 쓰고있다.

그리고 조각은 보통정도로 돋을새김을 하면서 아래로 내려가며 점차 낮게 돋우새겼다.

조각은 야외광선을 효과있게 리용하여 시각효과를 잘 나타냈다.

묘길상의 본래 이름은 아미타여래상이였다. 그러던것을 18세기 말엽 조각의 오른쪽아래에 《묘길상》이라고 이름을 새긴 때로부터 지금의 이름으로 불리워지게 된것 같다.

부처의 앞에는 돌등이 있다.

묘길상은 당시 우리 인민들의 우수한 예술적기교만이 아니라 통이 크고 대담한 기상을 엿볼수 있게 하는 귀중한 문화유산으로서 잘 보존관리되고있다.

본사기자

상 식

사람의 생명과 마그네시움

마그네시움(Mg)은 사람에게 있어서 필수원소의 하나이다.

어린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일정한 량의 마그네시움이 뼈에 침적되여있어야 골격의 정상적구조와 기능을 보장할수 있다.

마그네시움은 심장혈관을 보호하고 동맥경화를 막으며 고혈압을 예방한다.

또한 심장근육에 대한 혈액공급량을 늘여준다. 자료에 의하면 심근경색으로 죽은 환자들은 파손된 심장부위의 마그네시움함유량이 정상수치보다 40%이하로 적었다고 한다.

마그네시움은 로인들의 심장이 정상적으로 활동하도록 하는데서 중요한 작용을 한다.

그리고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신경계통을 진정시키며 지나친 흥분, 불면증, 정신우울증을 비롯한 정신 및 신경증상의 발생을 방지한다.

과학자들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어른들은 하루에 350㎎의 마그네시움을 섭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고기를 될수록 적게 먹고 밀을 비롯한 잡곡을 많이 먹으면 지방의 섭취량을 줄이고 마그네시움을 적당하게 섭취할수 있다. 이때 밀을 세밀하게 가공하면 마그네시움함유량이 적어진다.

사람들은 건강과 장수를 위하여 마그네시움의 섭취에 응당한 주의를 돌리는것이 좋다.

* * *

사 화

초 산 장 수

옛날 압록강가의 외진 변방고을인 초산에 돌로 쌓은 성이 있었다.

이 성안에서는 날마다 끌끌한 청장년들이 무술훈련을 진행하였다.

무술훈련은 김진이라는 청년이 주고있었다.

일찌기 소년장수로 소문난 김진은 무과에 급제하였다. 그는 열렬한 애국의 마음을 안고 직심스럽게 무술을 련마해나갔다. 날이 감에 따라 그의 무술은 눈에 띄게 발전하였으며 사람들을 경탄시키였다. 하여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초산장수라고 불렀다.

그후 그는 오위장(조선봉건왕조시기 군사조직체계의 하나인 오위의 책임자)이라는 중책까지 지니였다.

그러던 1591년 3월 조정에서는 일본을 다녀온 사신들의 보고를 둘러싸고 조선을 침략할 기미가 보인다느니, 그렇지 않다느니 하는 론의가 분분하였다.

조정대신들과 량반관료들은 일본의 조선침략설을 대부분 믿지 않았다.

이러한 소식이 초산장수 김진의 귀에도 들려왔다. 그는 무기를 정비하고 부대의 훈련을 더욱 다그쳐나갔다. 김진의 이런 행동은 조정대신들의 반감을 샀으며 그로 하여 그는 오위장직에서 파직되였다.

애국심이 강하고 무술이 뛰여난 김진이 초야에 묻히기는 아까운 사람이라고 여긴 초산군수는 그에게 고을의 용기서(조선봉건왕조시기에 무기관계 일을 맡아보던 지방관청)를 림시 맡기였다.

김진은 일을 알심있게 해나갔다. 동시에 그는 고을의 젊은이들을 모아가지고 무술을 배워주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몇달이 지난 1592년 4월 왜적들이 우리 나라에 쳐들어왔다.

삽시에 부산을 함락시킨 왜적들은 한성으로 진격했다. 한성은 하루아침에 뒤숭숭해졌다.

김진이 이 소식을 들은것은 6월 중순이였다.

신성한 조상의 땅에 왜적들의 어지러운 발굽소리가 울린것을 가슴아프게 여긴 그는 30여명의 젊은이들로 의병을 무어 평양성으로 달음박질해갔다.

그들이 평양성에 당도했을 때에는 왜적과의 싸움이 한창이였다. 그는 의병들과 함께 번개같이 좌충우돌하며 적들을 무찔렀다.

그의 장검이 왜적들의 머리우에 용서없이 날아들 때마다 적병들은 무리로 쓰러졌다.

그러던 어느날 김진은 또다시 왜적들의 공격을 맞받아 돌격전에 나아갔다.

《살아도 한생, 죽음도 한번이거니 나라와 겨레를 지키는 싸움에서 목숨을 아낄소냐!》

그의 뒤를 따라 의병들도 공격전에 나섰다.

수많은 왜적들이 시체가 되여 풀밭을 뒤덮었다. 적들은 뿔뿔이 도망치며 조총질을 했다.

순간 김진은 몸을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렸다.

그의 가슴부위에서 피가 배여나와 점점이 붉어지더니 옷자락밑으로 방울져 떨어졌다.

시간이 갈수록 가슴에 치명상을 입은 김진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다.

《적들을 쳐물리치고 나라를 굳건히 지키는것이 내 소원일세.》라고 김진은 말하며 간신히 장검을 들어 의병들앞으로 내밀었다.

《집에 돌아가면 이 장검을 내 아들에게…》

그는 말을 채 끝맺지 못한채 전장에서 숨을 거두었다.

그로부터 몇달이 지나서 평양성이 탈환되였다. 나라에서는 김진의 무훈을 평가하여 일등훈공을 내렸다.

* * *

유모아

귀막고 편지읽기

한사람이 큰소리로 편지를 읽고있었다. 이때 다른 사람이 그의 등뒤에 가서 그의 두귀를 손으로 막았다.

이것을 본 지나가던 길손이 의문을 표시하였다.

그러자 등뒤에 있던 사람은 이렇게 통을 주었다.

《내가 글을 몰라 이 친구에게 읽어달라고 했는데 내 안해에게서 온 편지란말이요. 친구도 들어서는 안되지!》

* * *

명승-약산동대

평안북도 녕변군에 있는 약산동대는 우리 나라의 이름난 명승지이다.

예로부터 관서8경의 하나로 일러온 약산동대는 경치가 아름답고 전망이 좋은 곳으로 소문났다.

약산이라는 이름은 이곳에 진귀한 약초들이 많고 약수가 유명하다는데서 붙여진것이다.

동대라는 이름은 동쪽에 높이 솟아있는 대라는 뜻에서 불리워진것이다.

약산동대는 산세가 험준하지 않으며 기묘하게 생긴 봉우리와 바위들, 울창한 수림과 철따라 피는 갖가지 꽃들로 하여 아름다운 풍치를 띠고있다. 특히 약산동대의 봄철경치는 온 산을 연분홍색으로 물들이는 진달래로 하여 참으로 아름답다. 뿐만아니라 여름철의 짙은 록음, 가을철의 단풍, 겨울철의 설경도 볼수록 황홀한 느낌을 자아낸다.

약산동대에서 절승을 이루는 곳은 제일봉, 동대, 학벼루 등이다.

제일봉은 약산동대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이며 좋은 전망대로 된다.

마치 농립모를 엎어놓은듯 우뚝 솟은 이곳에 오르면 약산동대를 감돌아흐르는 구룡강과 멀리에는 조선서해로 유유히 흐르는 청천강, 대령강이 보인다. 그리고 동쪽으로는 평안북도에서도 이름난 룡문산의 웅장한 자태가 아득히 바라보인다.

제일봉과 잇닿은 동대에는 거북바위를 비롯하여 류달리 희고 정가로운 바위들이 많이 드러나있다.

그가운데서도 사람들의 경탄을 자아내는것은 거북바위이다.

학벼루는 약산동대의 북쪽끝에 절벽을 사이에 두고 솟은 봉우리로서 기암절벽을 자랑하는 명소이다.

약산동대에는 우리 선조들의 창조적재능과 예술적기교를 보여주는 옛 건물인 천주사와 서운사를 비롯한 유적유물들도 많다.

오늘 노래 《평북녕변가》와 함께 널리 알려진 약산동대로는 조국인민들과 해외동포들, 외국인들이 수많이 찾아와 즐거운 휴식의 한때를 보내고 있다.

본사기자

학벼루

천주사

금강산 해금강문　　본사기자 김춘혁

　바다가에 절벽인 크고작은 두 바위기둥이 마주 서있어 마치 열려진 문 같다고 하여 불리워진 해금강문.

　오랜 세월 비바람에 깎이고 파도에 씻기여 형성된 기묘하고 아름다운 그 모습 해금강의 풍치를 더해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시 서성구역 서천동 ㄱ—2080180
http://www.korean-books.com.kp　E-mail: flph@star-co.net.kp